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6호

Thursday, July 4, 2024 A

“해리스, 트럼프와 접전”... “미셸 나오면 낙승”?

(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더 커지는 바이든 ‘결단’ 압박
해리스 45%, 트럼프 47% ‘박빙’
미셸 50%, 트럼프 39%... 11%P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돌파 선언에도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이 확산일로다. 바이든 본인은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TV토론 폭망’ 후 패닉 상태인 민주당, 뚜렷하게 하향세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에게 등을 돌린 친민주당 성향 언론 등은 바이든에게 ‘결단’을 압박하는 흐름으로 내몰고 있다.

수면 아래 불만이 끓던 민주당에선 2 일현역 의원이 공개적인 ‘후보 사퇴론’을 처음으로 냈다. 총대를 멘 건 15선의 로이드 도켓 하원의원이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듯 바이든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F 케네디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존슨은 케네디 암살 후 대통령직을 맡았고 1964년 대선에서 대승하며 연임했다. 이후 68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베트남전 전황 악화과 경제위기로 민심이 들끓자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다.

당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많다. 마리 글루센캠프 페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언’했다. 그간 바이든을 옹호해 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 가능성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최근 지인들에게 “안그래도 만만치 않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더 험난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하원 민주당의 한 보



TV토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게 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은 적극적인 ‘대선 거리두기’에도 대체 카드로 소환되고 있다. [AP-AFP-연합뉴스]

좌관을 인용, 민주당 하원의원 25명이 앞으로 며칠간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번 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ABC방송 인터뷰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의 후보 경쟁력은 부통령인 해

리스에 다소 밀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TV토론 직후인 지난달 28~30일 실시한 CNN-SSRS(여론조사업체) 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대결 시 둘의 지지율은 각각 43%, 49%로 격차가 6%포인트였다. 해리스와 부통령 대결 시 45% 대 47%로 격차(2%포인트)가 좁혀졌다. 또 다른 대안 주자로 거론

되는 이들도 트럼프와의 가상대결에서 4~5% 패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등판한다면 트럼프를 너끈히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은 각각 40%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미셸 오바마와 트럼프 맞대결 시 50% 대 39%로 상당한 격차로 우세했다. 미셸 오바마는 그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여사는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다. 회고록 『비커밍』이 대히트하며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 왔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로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정치와 맞지 않는다”며 부인해 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2면 ‘해리스’로 이어집니다

“바이든 후보직 사퇴 고민” 보도에 백악관 “완벽한 거짓” 강력 부인

TV토론 이후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완벽한 거짓”이라며 보도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이었던 지난주 TV 토론 이후 한 핵심 측근에게 ‘향후 며칠 안에 대통령직에 나설 수 없음을 대중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의명의 측근은 이어 “그는 그와 같은 일(TV토론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이 두 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참패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 첫 번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NYT 보도에 대해 ‘사실 무

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브리핑 내내 이어졌다. 그러자 커린 잔피에어 대변인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점”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고 있고, 나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2면 ‘바이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248주년 독립기념일 7월4일 오늘은 미국의 제248주년 독립기념일이다. 미국정부는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의 주가 서로 모여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을 기념해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서 가족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변지말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거야, 채상병특검법 오늘 처리... 한달 만에 다시 용산행

우원식, 대정부질문 패스하고 상정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다. 상정이 강행된 직후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을 진행한다"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돼 있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취소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 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

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1석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제외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초입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21대 국회 때 없었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본회의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의 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으로 젊은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오롯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험적 요소로 가득 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조를 짜 돌아가며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이정도가 전부다. 결국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거야의 일방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 금명간 되풀이된다는 의미다.

여권의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재표결에선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미 여당에서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의견을 밝힌 데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달 25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본회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대선 모드의 연장선인데,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대치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정·윤지원 기자

김병주 막말 논란 커지자 친일프레임 꺼낸 거야

(“정신나간 여당” 발언)

"이참에 독도를 그냥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냐?"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성이 높아졌다. 박 원내대표는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사진)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관계를 '동맹'이라고 지칭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비난했다가 파행을 빚었지만 다음 날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다른 지도부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일제 치하 36년의 치욕을 잊었는가? 김 의원이 예리하게 잘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거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파행"(고민정 최고위원)이라며 거들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반일 성토'로 막을 올리고,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와



2일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간 의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경재 기자

동맹관계라고 주장하는 보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며 "국민의 탄핵 정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밖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동맹 발언은 국민감정에 매우 반하는 행태"라며 "김병주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같은 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도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잃은 게 없다"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검사 탄핵 등으로 역풍이 우려됐는데, 친일 논란이 터지면서 전선이 확장되고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네이바·라인 야후 사태 등에도 공세를 펴고 있다. 김경재 기자

>> 1면 '해리스'에서 이어집니다

TV토론 이후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모두 내림세다. 미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소속 지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공개 행사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완주의

지를 과시했다.

또 5일 보도될 ABC뉴스 심층 인터뷰에서 견해를 과시하고 위스콘신(5일)·펜실베이니아(7일) 등 경합주 유세도 재개한다. 그는 2일 버지니아주 매클린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TV토론을 앞두고 외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며 토론 출전을 피로 누적 탓으로 돌리는 "(토론 당시)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고 말했다. 위성현·김형구 특파원

>> 1면 '바이든'에서 이어집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나는 끝까지 이 경쟁에 나설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민주당이 단결하면 항상 이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을 비판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확대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은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상

태다. 2일 15선의 로이드 도겟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고 트럼프의 많은 거짓말을 들춰내는데 실패했다"며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지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현·강태화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5일(금) 94~76	8일(월) 93~73
6일(토) 94~71	9일(화) 93~73
7일(일) 93~72	10일(수) 84~70

7월 4일(목) 93~7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메릴랜드 마리화나 세금 계속 증가

수도권 지역 증가세 가장 높아

메릴랜드가 작년 3분기 오락용 마리화나를 처음 합법화한 이후 세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릴랜드 회계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마리화나 판매세 수입이 1470만달러로 1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메릴랜드는 작년 7월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매입을 허용한 바 있다.

브룩 리어맨 회계감사원장은 “마리화나 산업이 메릴랜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잠재적 밑거름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관련 수익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한다”고 전했다.

메릴랜드는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금액의 9%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



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의약품으로 간주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메릴랜드는 오락용 마리화나 정책 집행을 위해 마리화나국(MCA)을 창설하고 수도권, 중부, 동부, 남부, 서부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현재 23개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

에 모두 96개 판매약국이 허가된 상태다.

허가된 약국의 자료를 종합하면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포함된 수도권의 판매세 수익이 67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분기 대비 상승률이 76%로 가장 높았다.

앤아룬델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 등이 포함된 중부지역은 370만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판매세 수익 중 약 30%는 지역별로 특별사업 지원보조금 명목으로 되돌리고 나머지는 MCA 운영비용과 메릴랜드 주정부 일반회계 등에 포함시킨다.

김옥채 기자

VA 애나 호수 이콜라이균 검출 실패

25명 감염 원인 밝혀내지 못해 더 큰 공포 불러일으켜

버지니아 보건부가 애나 호수(사진)에서 이콜라이 균 검출 작업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혀, 과연 수십여명에게 괴질을 유발했던 원인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말과 6월초 버지니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최대 담수호 애나 호수에서 수영했던 주민 25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STEC)으로 입원했으나, 당국에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STEC는 대부분 이콜라이 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샘플조사에서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감염원인을 둘러싸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괴 바이러스에 의한 STEC 질환이 유발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레이크 애나에서 수영을 했던 이들로, 환자의 76%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북버지니아와 중부지역 주민이 대부분이다. 이들 STEC 환자 중 최소 5명은 심각한 장기파열 현상이 나타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 보건부(VDH)는 버지니아 환경부(DEQ)와 공동으로 레이크 애나 6곳의 담수 샘플을 채취해 STEC 감염원으로 알려진 이콜라이 균을 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국에서는 모두 두자체에 걸쳐 샘플 원인균 조사를 벌였다.

VDH는 “개별 환자들이 섭취한 음식, 폭우로 인한 환경오염, 하수도 시스템 결절, 선박 화장실 오폐수 방류, 소와 말 등 분노 방류 등 여러가지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감염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5세 이하 어린이가 민물 담수호 수영을 삼가고, 화장실 볼 일을 본 이후 반드시 비눗물로 손을 세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처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입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H마트, “Ten Thousand 프랜차이즈 품는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의 구매 본부인 ‘그랜드 BK(Grand BK)’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Ten Thousand’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FDD)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en Thousand’는 창업 초보자들도 쉽게 전문가 수준의 맛을 내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한 명의 가맹주가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Ten Thousand’는 2020년 7월 호주 시드니를 기점으로 현재 미국, 대만, 베트남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홍콩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이다.

Grand BK는 2022년 미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에 첫 매장을 성공적으로 오픈했으며, 현재 뉴욕 맨해튼 내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엄선된 고품질 원두를 사용하여 핸드드립 커피, 아인슈페너, 에스프레소

크립 라떼와 같은 시그니처 메뉴를 제공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또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L’AMI’와 연계하여 커피 외에도 시그니처 베이커리와 디저트 라인을 강화하여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며, ‘L’AMI’의 FDD 승인은 올해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문의:franchise@10000coffeeus.com

김은미 기자

재외국민에 한국 의료상담 제공

스마트패스 등록, 앱 설치해야

미주 지역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응급의학 전문의를 통한 실시간 상담을 제공기로 했다.

이는 미주 지역 외에도 해외에 머무는 재외국민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2일(한국시간)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상담 및 스마트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9 응급 의료상담(영사콜센터 02-3210-0404·소방청 044-320-0119)은 해외에 머무는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전

하나 이메일로 문의할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응급 의료상담은 응급 처치법, 현지 약품 구입 및 복용법 안내, 여행 국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한국 이송방법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119 응급 의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패스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행객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를 만면 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여권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미국 최대 장로교단서 첫 한인 사무총장 선출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이하 PCUSA)가 최초로 한인 여성 목회자를 정서기(stated clerk)로 선출했다. 정서기는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사실상 교단 내 행정 실무 총괄하는 자리다.



전공한 뒤, 플로리다국제대학에서 석사 학위(금융학)를 받았다. 이후 컬럼비아신학대학원(신학 석사)을 졸업했다.

PCUSA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지현 목사(49·사진)가 정서기로 총회 인준을 받았다.

PCUSA 소속 김기대 목사(평화교회)는 “대외적으로는 총회장이 교단의 얼굴이지만,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정서기”라며 “영어, 한국어 모두 잘하는 1.5세 목회자”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인준 후 “우리 교단이 지역사회에서 교회 중심적이 아닌 주변 이웃과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지현 목사는 조지아 해밀턴 장로교회, 애틀랜타 그레디메모리얼병원 등에서 사역하고 PCUSA 재단 이사, 뉴커버넌트트러스트컴퍼니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오 목사는 다재다능하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생물학과 독일어를

장영 기자

성형외과에 ‘금광’ 된 비만치료제

“살 빠지니 처진 살 골치”
WSJ, 치수 적은 옷 구매
의류 업계도 반사 이익



일론 머스크는 다이어트의 비결을 ‘단식’과 ‘위고비’라고 콕 찍어 말했다.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캡처]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제니퍼 위더스푼(47)은 비만 치료제를 먹고 100파운드를 뺐다. 문제는 감량한 뒤 늘어난 배살이었다. 그는 늘어난 부분을 없애려고 복부 성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 끝에 20년 만에 ‘빨래판’ 복근을 얻은 그의 취미는 이제 ‘헬카 찍기’가 됐다.

미주리에 거주 중인 앨리스 로즈(45)는 당뇨 치료 약품이면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오젠포를 복용한 뒤 148파운드를 감량했다. 체중은 줄었지만, 늘어난 살이 닿은 부위에 땀이 차면서 발진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시달렸다. 결국 그는 피부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야 발전에서 오는 통증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효과를 톡톡히 봐 단기간에 감량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위고비는 2021년 국내서 세계 최초로 발매된 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살빠졌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얼굴 등의 탄력이 떨어져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배·팔·엉덩이 피부가 늘어지면서 살을 덮어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 블룸버그는 이런 이유로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 감량에 성공

한 이들이 처진 살 제거 등 성형 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성형외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2023년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 감량한 이들 가운데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가 8% 늘었다. 블룸버그는 “이런 트렌드가 성형외과에는 돈벌이(금광)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성형 수술은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돼 비싸다. 전신 수술의 경우 8만 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비만 치료제를 먹기 위해 월 1000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 후 성형 수술을 받는 데도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 의사인 미체레셔맥은 “새로운 범주의 환자들”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비만 치료제를 통해 살이 빠

진 사람들이 늘면서 패션업계도 덩달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WSJ은 여성복 업체 라파예트 148의 최고 경영자(CEO) 디어드레윈의 발언을 인용해 고객 중 5%가 체중 감량으로 새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스라지(XL) 사이즈 옷을 입던 고객들이 미디엄(M)으로 치수를 줄여 새 옷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퀸 CEO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사이즈가 작은 옷은 원단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든다”고 전했다.

전국 등지에서선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약 시장은 올해 150억 달러에서 2030년 77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서유진 기자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일라이릴리 ‘도나네맵’

연방식품의약품(FDA)은 2일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맵’(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나네맵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독립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는 도나네맵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이익이 위험보다 크며 만장일치로 승인을 지지한 바 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단백질 타우 수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약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나네맵이 FDA 승인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일본 기업이 공동 개

발한 ‘레캄비’와 경쟁이 예상된다.

‘키순라’(Kisunla)라는 상표명의 도나네맵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 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plaque)을 억제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는 약이다.

도나네맵은 임상실험 결과 레캄비보다 효과가 좋고,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레캄비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인지능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약 70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2050년까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DA 승인에도 뉴욕증시에서 일라이릴리 주가는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1%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금리인하는 확신 더 필요”

파월 의장 ECB 포럼서 발언
“2% 수준까지 계속 낮춰야”

제롬 파월(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2

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전(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ollywood Casino에는 Fortune Pai Gow 포커, 3 카드 및 4 카드 포커, High Card Flush 등 프로그레시브가 특징적인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 게임이 모두 있습니다!

HOLLYWOOD CASINO에서 모든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9 DRAGONS 九龍

정통 중국 요리

9 Dragons의 이국적이고 정통적인 아시아 풍미를 경험해 보세요. 아시아 스타일의 최고급 요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칠리 소금을 곁들인 점프 쉬림프, 칠리와 타이 바질을 곁들인 치킨, 태평양 연안 최고의 국수 등이 인기 있는 중국 레스토랑을 만나보세요. 눈앞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는 넓은 스시 바를 즐겨보세요.

9 DRAGONS 드래곤으로 극동 지역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해 보세요!

HOLLYWOOD
Casino
AT CHARLES TOWN RACES
A PENN Play Destination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으세요?
1-800-GAMBLER로 전화하거나
www.1800gambler.net을 방문하세요.

“환경과 지갑을 동시에 챙기는 스마트한 선택”

태양광 패널 설치 ‘대세로 뜬다’ 선에너지 컨설턴트 ‘업계 주목’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재, 태양광 패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써 미래의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태양광 패널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들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전기 요금



절감’ 또한 중요한 요소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가정의 전기 요금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 시스템은 자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인 선에너지는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태양광 패널을 보급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선에너지는 한인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에너지 측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객들의 솔라 시스템 구매 및 설치비용을 100% 부담한다. 한인 고객들은 돈 들이지 않고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는 전기 요금에 전혀 나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대신 월간 100~150 달러 수준의 리스비용을 받는다.

실제로 대부분 한국인 고객들은 이 같은 리스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 투자금이 들어가는 옵션은 꺼리는 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선에너지 측은 현재 전기세 고지서를 보내면 솔라 시스템 설치 후 절약 가능한 금액과 프로젝트 가격을 잘 정리해 무료로 견적서를 보내준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회사는 현재 특별히 프로젝트 전체 가격에서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실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기회”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선에너지사는 한국기업 한화가 제작한 최고 등급의 솔라패널을 사용하며, 가장 우수한 엔페이스(ENPHASE) 마이크로 인버터를 도입, 핸드폰으로 솔라 패널의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장점을 알리며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703-357-6000 이메일: ryan.hwang@sunenergyconsultants.com

미국 이민·유학생에 도움 마약 예방교육 서적 출간

화랑재단 소속 유진·유준군 샌프란 거리 마약 실태 충격 ‘35분 완전무장’ 10개월 집필

“한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약에 대해 알고 공부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형제가 쓴 책 ‘35분 완전무장: 대한국 마약 시대 행동요령’이 화제다. 화랑청소년재단 글로벌 의장인 유진(17)군과 그의 동생 유준(15)군은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나 유학생들을 위해 마약 관련 정보 및 예방 교육 내용을 담은 책을 지난 5월 출간했다.

현재 한국에서 세인트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유진 군은 “2년 전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길바닥에 주사기가 나뒹굴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에 와서 마약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집필 계기를 전했다.

또 단 35분이면 책 한 권을 읽고 마



마약예방교육책 ‘35분 완전무장’을 집필한 유진(왼쪽)과 유준(오른쪽)군이 책을 홍보하고 있다.

약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은 책 제목이라고 덧붙였다. 유 형제는 스탠포드 의대의 마약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고 연방 마약국(DEA)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10개월에 걸쳐 책을 집필했다.

유진 군은 “자료를 조사하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이미 기준치가 넘어간 지 오래였다”며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마약은 아직도 낯선 존재다.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채 이민이나 유학을 떠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동생 유준 군은 책을 쓰면서 “마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자료가 많이 필요했는데 저작권이 걸려있거나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 형제가 쓴 ‘35분 완전무장’은 현재 한국 대형 서점에 입점하였으며 조만간 아마존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랑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한 지 각각 4년, 3년 차라는 유진과 유준 군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화랑을 통해 성장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진 군은 지난 6월 전 세계에 있는 화랑 기부자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의장으로 선출되어 최근 화랑 갈라참석차 LA를 방문했다.

유진 군은 미국 명문대 진학과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고 있으며 동생인 유준 군은 아버지에 이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유진 군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수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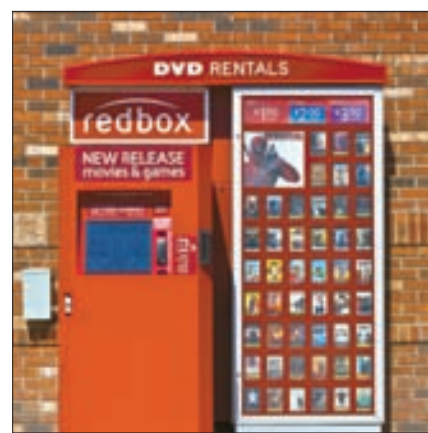
DVD 대여업체 ‘레드박스’ 파산 작년에만 6억6300만달러 적자

DVD 대여 사업을 벌이던 레드박스의 모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레드박스의 모회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엔터테인먼트(CSSE)는 6월 28일 채프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CSSE 측의 자산은 4억1400만 달러인데 반해 부채는 9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와 같은 영화 제작사와 월그린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소매점도 채권자에 포함됐다.

레드박스는 대형소매점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들에게도 알 수 있듯 강렬한 빨간색의 기계가 이목을 끌어 명성을 얻었다. 회사는 전국에서 2만7000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적자 규모는 2022년에는 1억1100만 달러, 2023년에는 6억3600만 달러였다.

모회사 CSSE는 90년대 베스트셀



DVD 대여 업체 레드박스의 모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러 중 하나인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2022년에 레드박스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SSE 측은 5억부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온 도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파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유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이라조) 월·화요일
웨일리노브방
300m
뉴타운
미락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바이든 차남 헌터 “아빠 구하기” ‘대법원 판결 대응회의’ 참석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터가 전날 백악관 자문단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가족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한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 직후 지난 주말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며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질 바이든 여사와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독립기념일 휴가 시즌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돌아왔고, 연설 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회의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1·6 의회폭동 사건 기소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사실상 상당 부분 인정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맹비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인들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미 NBC 방송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연설 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며,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아픈 손가락’인 헌터가 백악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 역시 헌터의 갑작스러운 참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터 바이든은 과거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근 3건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달러 이상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터는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는 델라웨어 월빙턴의 한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을 도둑맞으며 아버지의 대선 가도에 큰 악재를 초래한 바 있다.

대선 판세 우려 오바마 “낙관 못해”

대선 첫 TV 토론 이후 확산하는 후보 교체론 속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좌측)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우측)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지인들에게 “안 그래도 만만치 않았던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이 끝난 뒤 SNS에 “토론이 생각처럼 잘 안되는 날도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오바마 전 대통령도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선거 판세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

거운등을 돕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선거캠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대화에 대한 WP의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바이든 캠프에 대한 비판론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WP의 전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선거 판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바이든 캠프가 이 같은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인 힐러리 로즌은 “바이든 캠프는 솔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자신들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위기 즐기는 트럼프...러닝메이트 발표 미루고 ‘여유만만’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론 등 민주당 내 혼란을 즐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러닝메이트인 미셸 오바마(우측)

뉴욕타임스(NYT)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를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 정가에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부통령 후보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는 것은 민주당 내 혼란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TV 토론 직후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토론 승자인 트럼프

진영 대선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에게 물려들어 인지력 저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확정될 경우 현재 후보 교체론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민주당과 친(親)민주당 성향의 언론이 자세를 전환한 뒤 트럼프 진영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공개하는 시점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최대 공영일인 독립기념일이 있는 이번주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방송국의 대표 앵커들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휴가를 떠난다는 주변 상황과 연관된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앵커가 소개하느냐에 따라 뉴스 가치가 달라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난 다음주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개연성이 크지만, 아예 오는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의 후보 확정 무대까지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도둑맞은 아이폰 찾다 엉뚱한 집 방화...5명 살해 남성 60년형

아이폰을 도난당한 뒤 추적을 시도하다 엉뚱한 집에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20대 남성이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원은 1급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케빈 부이(20)에게 이날 징역 60년형을 선고했다.

부이가 검찰과의 협상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뒤 일부 감형된 것으로, 사건 발생 후 4년 만에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부이

는 2020년 8월 5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세네갈 출신 이민자 여성 하산 디올(당시 25세)과 그의 2세 딸, 디올의 오빠(29세)와 그의 아내(23세), 이들 부부의 22개월 된 딸 등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했다.

부이는 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뒤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폰과 돈, 신발을 도둑맞은 뒤 폰을 추적하는 앱을 이용한 결과, 이 폰이 해당 주택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화재로 숨진 이들이 자신의 아이폰을 훔친 일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의 아이폰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유족 아마두 베에는 “언젠가 신이 정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에는 사건 당시 세네갈에서 미국 이주를 위한 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가족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한민국 불어/영어/중국어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에서 30분, 일본어/영어/한국어 10분, 24시간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챔틀리 클리닉과 센터빌/챔틀리 클리닉에서 각각 5분거리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아이클리어(정)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출시 기념 행사

▶ 7월 28일까지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멜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영국 오늘 총선 ... “보수당 창당 190년만에 최악 참패 전망”

여론조사 “노동당 484 보수당 64석” 수석 총리도 지역구서 낙선 예측 브렉시트·인플레이션 민심 등 돌려 극우 개혁당으로 보수층 더 분산

4일(현지시간) 치러질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14년 만에 노동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줄 뿐만 아니라 1834년 창당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는 참패를 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서베이션은 이번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전체 하원 의석 650석 중 484석을 가져가며 1997년 토니 블레어 전 대표가 거

둔 418석이라는 압승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리시 수석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64석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전인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체 651석 가운데 각각 365석과 282석을 얻었다. ‘영국의 트럼프’라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7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서베이션은 내다봤다.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총선을 조기 실시키로 한 수석의 정치적 승부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수석 자신은 100년 이상 보수당에 표를 던져온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패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이번 선거에서 수석의 지역구인 노스 요크셔 주 중심도시인 리치먼드의 표심이 노동당으로 향할 수 있다고 집중 조명했다. 수석 총리는 지난 2015년 리치먼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닥친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지지율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수석 총리는 지난 5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며 반등을 노렸지만, 노동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BBC 여론조사(6월 29일 기준)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40%였지만, 보수당은 20%에 불과했다. 여기에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

혁당(16%)이 세를 불리며 보수당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프랑스에 불고 있는 ‘극우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보수당의 패배를 예견하며 “유권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난민 등 현재 영국 사회를 고통에 빠뜨린 여러 문제의 책임이 보수당에 있다고 본다”며 “보수층이 개혁당에 눈을 돌리고 있어, 보수당은 심지어 개혁당에도 (득표율에서)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석 총리는 마지막까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당시보다 현재 영국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됐다”며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모든 이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영국은 올바른 길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경제는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정당 노선으로 표심을 공략 중인 노동당이 향후 집권하더라도 경제 위기와 무너진 공공서비스 등 영국 사회의 난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유권자들은 보수당을 심판하고 싶은 뿐, 노동당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정부 역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임주리 기자



자전거 타고 떠나는 네덜란드 전 총리 14년간 네덜란드 총리로 재임한 마르크 루터(왼쪽)가 지난 2일 디스호프 신임 총리(오른쪽)의 배웅을 받으며 퇴근길에 올랐다. 루터 전 총리는 10월 나토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스토프 총리는 엄격한 이민정책을 예고했다. [AFP-연합뉴스]

“북한군, 러시아의 우크라 땅굴 작전에 동원될수도”

RFA “러, 땅굴은 드론 피할 새 전술 북 공병 1만5000명 파견될 가능성”

최근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러시아의 땅굴 건설에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분석가 알렉세이 쿠쉬는 영국 데일리 메일을 통해 “북한 당국이 돈바스 지역의 북극 작전을 위해 파견하는 공병들이 실제로는 새 지하 터널 즉, 땅굴 굴착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쿠쉬는 “소식통에 따르면 5개 북한 공병 여단이

돈바스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견 병력이 최대 1만5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아우디우카와 토레츠크 인근에서 땅굴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에서 도네츠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지하 터널을 이용해 피브니히네 외곽의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쿠쉬는 러시아군이 전선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새 땅굴 건설에 나선 것으로 예상하며 “땅굴은 드론과 포격을 피할 수 있는 새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쿠쉬는 북한군이 전 세계에

서 터널 건설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군이 수십 년간 화강암으로 된 비무장 지대에 땅굴을 건설한 점을 지적해 북한이 땅굴 기술자를 이미 러시아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사브리나 심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대 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은 북러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새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배재성 기자

강력한 허리케인 베릴, 카리브해·베네수 강타...최소 7명 사망

열대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내고 있다.

3일 A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관통하면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카리브해 섬 그레나다와 카리야쿠에서 모두 3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명이 숨졌으며,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또 4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주택 8천여채가 파손됐다고

발했다. 카리브해의 섬 국가들에서도 주택과 건물, 기반 시설이 상당수 파괴됐으나, 정전과 통신 두절로 인해 피해 상황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리브해 남동부 지역은 20년 전 허리케인 이반이 강타해 수십명이 사망한 이래 가장 큰 허리케인 피해를 겪었다고 AP는 전했다.

베릴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로 강한 등급인 4등급으로, 1일 밤에는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발달해 2일 최대 풍속이 270km에 달했다.

지금은 위력이 조금 줄어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최대 풍속이 230km 수준이다. 이날 오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남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으며, 계속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자메이카와 케이맨 제도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으며, 자메이카 정부는 강풍과 해일 등 재난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섬 전역에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베릴은 오는 4일 저녁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근접하고 5일에는 유카탄반도

를 관통한 뒤 주말에는 멕시코만을 지나 멕시코 동부와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상 예보관들은 이 허리케인이 유카탄반도를 지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될 것으로 예상했다.

멕시코 정부는 유카탄반도 동남부 코스타 마야에서 강군에 이르는 해안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하고 베릴 상륙에 대비 중이다.

베릴은 열대 대서양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형성된 강한 등급의 허리케인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6월에 발달한 4등급 이상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됐다.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한 그레나다 카리야쿠 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17~25개의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올해 허리케인이 유난히 잦아질 요인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과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으로 교란된 대기 흐름 등이 꼽힌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라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즉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품질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마감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6차 10/29~11/8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샬레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품질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샬레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8/09~8/19 10박 11일 **북유럽 4개국** \$5290+항공

8/14~8/19 5박 6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2290(항공포함) **대강 양파**

8/15~8/21 6박 7일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대강 양파**

8/30~9/06 7박 8일 **알래스카 크루즈** 인사이드 \$1990~부터(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항공포함) **대강 양파**

8/30~9/02 3박 4일 **노동절 특선 멜로스톤** \$1290+항공

9/02~9/13 11박 12일 **영국일주** \$5890+항공

9/10~9/20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대강 양파**

9/18~9/26 8박 9일 **정통 동유럽** \$3290+항공

9/18~10/1 13박 14일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4390+항공

9/20~10/2 12박 13일 **파노라마 서유럽** \$3890+항공

9/23~10/2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9/24~10/4 10박 11일 **고품질 고국일주 3차** \$2990+항공 **대강 양파**

9/25~10/1 6박 7일 **크로아티아 발칸** \$2890+항공

9/25~10/5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2890+항공

10/03~10/16 13박 14일 **독일 일주** \$5690+항공

10/08~10/18 10박 11일 **스페인&포르투갈** \$3190+항공 **대강 양파**

10/09~10/19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490+항공 **대강 양파**

10/14~10/25 11박 12일 **호주&뉴질랜드** \$3790+항공

10/15~10/25 10박 11일 **고품질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대강 양파**

10/17~10/30 13박 14일 **프랑스 일주** \$5690+항공

10/22~10/31 8박 9일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1990+항공

10/22~11/01 10박 11일 **고품질 고국일주 5차(단풍)** \$2990+항공 **대강 양파**

10/29~11/08 10박 11일 **산티아고 순례** \$3590+항공

10/29~11/08 10박 11일 **고품질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11/27~12/01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07~12/19 12박 13일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390(인사이드)

12/23~12/28 5박 6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390+항공

12/23~12/29 6박 7일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시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세,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약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소,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마피코,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룡박물관, 자오공,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행곡,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춘,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유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독립기념일 특선 happy 4th July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7월 4일 출발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베스트셀러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7/29, 9/16, 10/14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대행버스 출발: 7/22, 8/5, 10/14

서부관광

미서부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성극 대니엘 +아미슈마켓 당일
 \$199 8/1, 9/19, 9/14, 10/17, 12/12

단풍관광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단체여행 환영**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8/5, 9/23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엘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입법 폭력”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것” 검사장들 강력 반발

야당 ‘검사 탄핵안’에 검사들 분통
이창수·송경호 등 내부망에 비판글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 “날 탄핵하라”
북부지검 부장단은 탄핵안 항의성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전북 전주을 국민의힘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의원들이 3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둘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맡았던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헌직 검사장 절반 이상이 비판에 나서며 등 검찰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일(전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검사도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대

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날(2일)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올린 게시글에는 검사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아 민주당 비판에 나섰다. 전국의 헌직 검사장급 인사(45명)도 절반 이상 동참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양석조 대검 부부장장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를 그 누구도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상 탄핵이 망치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며 “그때까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

고 적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밖에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 “이리 가뻐이 탄핵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박영빈 청주지검장), “역지 탄핵으로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마를 벗어날 수 없다”(박기동 대구지검장), “탄핵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도 없다”(박재익 인천지검장), “30년 전 드라마 모래시계의 ‘강 검사’가 연행되면 이

검사가, 이 검사가 연행되면 김 검사가 하면 된다’는 장면이 떠오른다”(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언젠가 이런 정치적 보복과 압력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사소한 절차상 시비도 없도록 수사했다”(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탄탄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달리 수가 없었던 모양”(윤병준 서부지검장) 등의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는 “권력자를 수사하려면 언제든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민·정진우·양수민·석경민 기자

용산 “검사 탄핵은 정치 쿠데타” 민주당 “검사들이 쿠데타”

용산 “야당, 대통령 탄핵 준비작업”
야당, 검사 넷 법사위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은 “정치 쿠데타 시도”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야당에서 검사 탄핵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나서고 있다”며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민형배·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힌 것보다 한층 더 강경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의 비위 의혹 중에 실체나 위법이 드러난 것은 없지 않으나”며 “결국 검사들의 업무를 중지시켜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담당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 보고됐고, 직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검찰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검사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권한 중 하나”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주요 간부를 도열시켜 놓고 발표하는 걸 보고 놀랐다. 무슨 검찰 쿠데타를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날 이 총장이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검사 탄핵안을 비판했던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태인 기자

진료 재조정? 표현만 바꾼 ‘휴진’에 불안한 환자들

서울아산·고려대·충북대병원 등
휴진 수위 낮췄지만 진료차질 여전
환자들, 치료일정 밀릴라 노심초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환자를 지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돌입(4일) 하루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이라고 했다.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

하려고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자료에서는 “휴진”이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은 진료 재조정이 라고 한다. 비대위는 4일 기준 주요 수술이 전주 대비 29% 줄고, 외래 환자도 17.2%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외래 예약을 양보해 달라”고도 밝혔다. 진료 재조정이라기보다 부분 휴진에 다름없다.

고려대병원·충북대병원이 이달 중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최근 주춤

했던 휴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당초 전면휴진을 언급하다 수위를 낮춘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환자 같은 필수진료를 놓지 않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무기한’ ‘휴진’ 같은 표현만 안 쓴다고 해서 진료 차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반대로 휴진을 내세웠지만, 세브란스병원 같은 데는 ‘무기한 휴진’에 가깝다. 사실상 정상 진료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 일

정을 미루는 연락이 갑자기 올라 전전긍긍한다. 설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과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보호자 정모씨는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는 휴진 소식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병원 비대위는 정부 정책이 바뀌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전공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 교수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매달린다. 환자는 불안하다. 김재학 한국회관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의사 처분만 바라보는 환자는 ‘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희귀질환 환자가 찾는 빅5 병원 휴진 소식이 나오면 노심초

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료 예약이 조급씩 밀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 피로 누적 같은 어려움은 심분 이해한다. 하지만 진료 현장을 떠나서는 어떤 주장도 환영받기 힘들다. ‘특 하면 휴진’이라는 비판만큼 불명예스러운 게 없다. 환자의 “존경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광적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욕먹어도 병원을 지켜주는 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도매업 / 쇼룸 / 리테일

VA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1.35M

3,600 SF 창고 / 리테일 / Warehouse / Industrial Flex,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495에서 1마일, Drive-in, 천장 18 FT, I-5 Zoning *추천업종: 도매업, 창고, 쇼룸, 리테일 SBA융자가능

사평센터 | 참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평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팜'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 지정 대리점

월단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도 거품을 채우고 찜질용 특수함~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일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함,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세탁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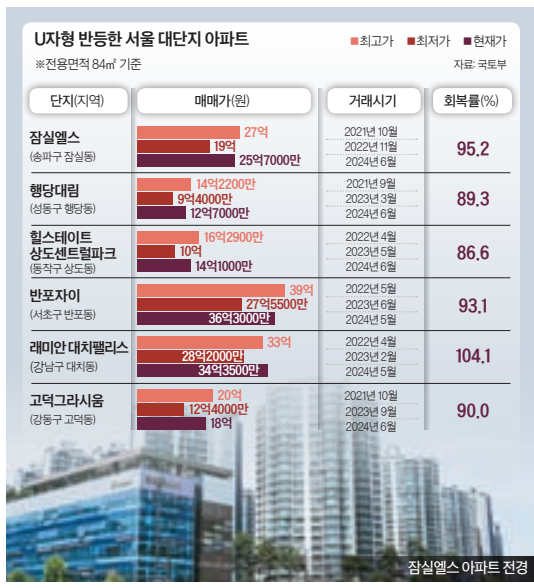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서울 집값 'U자형' 반등... 불안한 무주택 30대, 빛내서 집산다

최근 30대 매입세 증가와 전셋값 급등하자 '차라리 집 사자' 갭투자보다 실수요자 중심 움직임 5월 아파트 거래, 3년 만에 최고치

30대 김모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 전용 면적 59㎡(25평) 신축 아파트를 9억원대에 샀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8억원 후반대에 살 수 있었는데, 6개월 새 1억원이 올랐다. 김씨는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걸 보니, 전세에 머무는 것보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했다.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21년 최고가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회복하며 94%까지 올랐다. 특히 강남·용산·종로구(98%), 서초·양천구(97%) 등은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 5월 5000건(5182건)을



넘으며 역시 2021년 2월(5435건)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분양 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688가구가 분양했는데, 7만279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 105.8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인포).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광

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2022년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L자형’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며 ‘U자형’ 반등이 나타나자 매수 대기자의 불안심리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무주택 30대’ 유입이 크게 늘었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집보러 오는 사람 대다수가 30대”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의 등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30대는 7333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16명)에 비해 69.9% 급증했다.

‘무주택 30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영끌’(빚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을 주도했다. ‘패닉바잉’이 극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 비중은 각각 47%와 43.5%였다. 이 비중은 2022년 3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43.3%로 당시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주택 시장에 ‘무주택 30대’가 다시 부상한 것

은 1년 넘게(58주 연속) 오른 전셋값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전셋값을 부담할 바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확대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 역시 ‘무주택 30대’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2021년 연간 평균치 54만 가구였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38만 가구로 3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

다만 이런 현상이 2020~2021년 ‘영끌족’이 주도하던 ‘패닉바잉’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주장이 많다. 당시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절정을 이룬던 시기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무주택, 상급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지만, 기타 대출은 그대로”라며 “대출을 끌어모아 매수에 나선 3~4년 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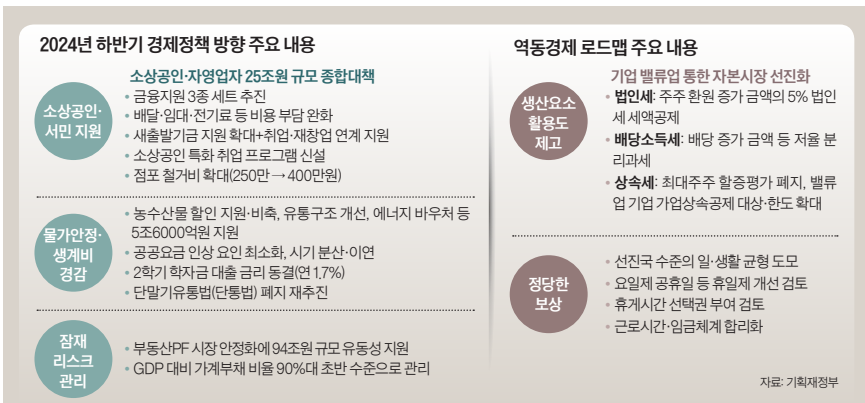
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 야당 지원금 비판

하반기 경방-역동경제 로드맵 준비 자영업자 절거비 400만원 지원 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5% 공제 야당 “부자감세”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의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을 그린 ‘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부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이 주재해 확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란 한국에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한 경제”라고 정의했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



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 소득세를 깎아준다.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 인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기존 최고 45% 누진세율) 배당 소득 증가분을 분리과세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다.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직전 3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폐지하고,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

리기로 했다. 모두 하반기 추진할 입법 과제다. 기재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중소기업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 규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2025년 이후엔 대기업집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민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을 불여 쉬는 ‘황금연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과 대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1조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폐업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대부분은 상당한 빚도 지고 있는데, 정부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자금의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린다.

한계 상황에 빠진 자영업자 가운데선 다른 일을 할 업무를 내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월 50만~110만원(최대 6개월)에 달하는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매월 30만~60만원을 준다. 다시 창업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해

선 철저한 시장 분석 없이 ‘회전문 창업’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재창업 컨설팅센터를 일대일로 붙여주면서 밀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 부담도 덜어준다.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데서 로드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임기 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상 추진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임도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내년, 나아가 윤석열 정부 임기를 지나서까지 장기 과제를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김민준·임성빈 기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한동훈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이 대통령과 나의 공동목표”

여당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④

‘배신의 정치’ 팩트 아닌 인신공격
내가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가 거칠더라도 밀리지 않는 게 유능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후보는 지난 2일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 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6개월 내지 1년 안에 확실한 반전과 우상향(右上向)을 이뤄 내지 못하면, 우리 지지층조차 기대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층이 원하는 건 우리만 똥똥 묻지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승리하라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당 안팎의 ‘윤·한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를 굉장히 잘 아는 사이고,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위해 가장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승리 이끈 유권자연합 회복 필요”

경쟁 후보들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 대해선 “팩트(fact·사실)에 관한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그분들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지적할 수 있지만 가급적 참으려 한다”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와

의 인터뷰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언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나.”
“처음엔 안 나갈 생각이었다. 총선 후 한두 달 지나고 보니 당이 심판 민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서 고민했다. 당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도움된다는 게 결론이었다.”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우리는 보수 우파 정당이다. 시장경제, 규제 철폐, 안보 같은 기본 철학은 당연히 가져간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가져온 과거의 유권자 연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수는 1639만4815표(득표율 48.6%)

였고,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수 총합은 1317만9769표(득표율 45.1%)였다. 단순 수치로는 집권 2년 동안 지지층 310만 명이 떠난 것이다. 한 후보는 “300만 명은 승패를 좌우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참패했다.”
“보이는 것보다 상황은 더 나쁘다. 200석 저지선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라, 막판엔 ‘이재명·조국 심판론’같이 지키는 선거운동을 했다.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45%가 최대치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변한다는 걸 보여야 한다. 저쪽을 향해 ‘너희는 범죄자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스

스로 매력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가드(guard)만 올리고 좀 맞다 보면 저쪽이 지친다? 그런 일은 없다.”
-경쟁 후보는 그걸 ‘분열’이라고 비판하는 듯했다.

“많은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당을 바꿔야 한다고 뜻을 모은다. 나는 그 뜻을 따르려는 것인 반면, 다른 후보들은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지’는 입장에 가깝다.”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많이 달라질까.

“당정 관계가 정치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가장 효율적인 건 많은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고 토론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는 건 그게 가장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관계처럼 거칠까?

“그렇지 않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다. 지켜봐 달라.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안에 따라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서로 인정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인터뷰 3시간 전 국회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탄핵안이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저

지고, 목전까지 차오른 사법리스크를 가리려는 것이다. 갈 데까지 간 상황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도 위기지만, 민주당은 더 심각하다. 해법이 없다.”

“무조건 공격 아닌, 여당의 매력 만들어야”
-이제 겨우 1심 중이다. 최종 선고 전에 대선이 열리지 않겠다.

“10~11월이 되면 사법리스크가 하나둘 결실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증 교사 혐의 등은 기소된 혐의 전체 중엔 일부지만 하나라도 유죄면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법리스크라는 건 그러려니 하다가도 막상 현실화되면 ‘현타’가 온다.”

-거야와 맞서는 데 원외의 당 대표의 한계는 없을까.

“지금 상황에선 원내와 원외의 차이는 피케팅을 (국회)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차이밖에 없다. 그런 구분 자체가 대단히 안이다.”

-당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하나.

“지금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만 집중한다. 1년 뒤, 3년 뒤를 어떻게 알겠나.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뿐, ‘뭘 더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지지층은 이 전 대표를 이길 대선후보를 간절히 원한다. 그게 나라 내 내가 나가고, 다른 분이 나가는 거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안덕근 “7~8월 중 대왕고래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열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본지 인터뷰
“국내 기업만으로 심해개발 한계”
엑손모빌 등 복수 기업 참여 의사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관련해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엑손모빌 등 복수의 해외 기업이 정부의 투자설명회(로드쇼)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7~8월 중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복수의 기업이 석유공사의 탐사 데이터를 열람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로드쇼 참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기업 중엔 엑손모빌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 장관은 “개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또 국내 기업만으로는 심해 개발을 진행할 기술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최대 140억 배럴(2000조원 안팎 가치)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제성 분석을 의심하는 일각에 대해 그는 “문제가 있다면 해외 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추진하는 지금 뒷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재검증 요구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로드쇼를 추가 검증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추가로 검증한다면 영업기밀이면서 안보 자산인 탐사 데이터 등이 악용될 가능성만 높인다는 반론이다.

앞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가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하다 철수한 일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과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해외 국가의 유전·가스전 개발 사례를 보면 특정 업체가 탐사를 하다 철수한 뒤 다른 업체가 들어와 성공시킨 경우가 많다. 21세기 최대 심해 개발인 가이아나 프로젝트의 경우 197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에 탐사를 진행하던 기

업이 철수했다가 2015년 결국 엑손모빌 등이 유전 발견에 성공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점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것(대왕고래)이 있다는 걸 보고받는다면 어떤 정권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인 가운데 유전·가스전 개발 필요성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근거로 “2050년에도 석유, 가스가 세계 에너지 수요의 45.6%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중국

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유전·가스전 개발 노력이 미미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7개) 위와 아래 등 주변을 다 탐사해 봐야 한다”면서다.

그는 “한국의 자원개발 분야는 201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이번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트라이해볼 만한 근거(대왕고래 프로젝트 물리탐사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오는 12월 탐사시차를 시작해 총 5공을 뚫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최근 발표한 지원 패키지(18조여원 금융지원 등)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일단 지켜봐 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국과수, 시청역 돌진 EDR 분석... 70대 택시기사 또 돌진 사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운전자 부부 "어, 어" 블랙박스 담겨 일부 전문가 "브레이크 안 밟은 듯"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1명 중상 사고 운전자 "차 붐붐 거러, 급발진"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70대 운전자의 택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 1일 일어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참사 경사자 1명이 추가돼 총 사상자가 16명으로 늘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브리핑에서 "피의 차량은 조선히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차모(68)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의 동승자인 차씨의 부인이 전날(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차씨 부인은 3일 중앙일보에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하려는데 물체인지 사람인지 있어서 피하려다가 갑자기 붐 뜨는 느낌으로 차가 빨리 나갔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날아가다시피 달렸다"고 주장했다.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가 반면에 차씨 측 주장과 반대되는 정

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사고 당시 CCTV를 본 전문가들 중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등은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등은 등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전문가도 있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 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경

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씨 부부가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의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차씨 부부가 차량에 타기 전후로 다뤘다는 풍문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사망자 중 1명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3일 오후 5시15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응급실 앞에 서있던 시민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A씨(7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붐붐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혜연·박종서·김서원 기자

“주 7일 일하던 성실한 아들, 영정사진 마땅치 않아 카톡 사진 써” 오열

“취업 1년 반만에 사고” 유족 충격 작년 10월 결혼한 새신랑도 숨겨

지난 1일 밤 발생한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참사로 사망한 9명 중 3명은 서울의 한 병원 주차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주차관리 용역업체 소속으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주차관리 직원이었던 사망자는 박모(40)·김모(38)·A(35)씨로, 퇴근 뒤 용

산의 게임 관련 전시장에 갔다가 시청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귀갓길에서 함께 참변을 당했다.

3일 A씨 등 세 사람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김씨의 아버지(68)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용산에서 게임 CD를 카드로 결제했더라"며 "용산에서 만났으면 용산에서 밥 먹고 해

어지지, 왜 시청 앞에서 밥을 먹었는지..."라며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외아들이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한 새신랑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로 월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반찬 해서 같이 저녁 밥도 먹고 그랬다"며 "사고 날에도 오후 4시 30분쯤 전화해서 '오늘은 약속 있어서 바빠요. 내일 갈게요'라고 하더라"고 아들과의 마지막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엄마 기다리니까

약속 가지 말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할 걸..."이라며 후회했다.

A씨 부모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 당일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사망 소식을 전한 뒤부터 한숨도 못 잤고, 어머니는 이틀째 꼭기를 끊었다. 30대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영정사진도 마땅치 않았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카카오톡 프로필용 사진을 찍어 보냈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쓸 수

밖에 없었다"며 "사진을 보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방에서 나와 '엄마'하고 부를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주차 관리 용역 직원으로 취업한 지 1년 반 만에 숨졌다. A씨 이모부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모아 스스로 등록금을 냈던 조카"라고 말했다. 10년 넘도록 주말마다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취업한 뒤엔 평일까지 주 7일씩 일했다고 한다.

손성배·이아미·이영근 기자

빛의 화가 방혜자, 풍피두를 비추다

프랑스 풍피두센터서 회고전 개막 이응노 이후 한국 작가 개인전 처음 유족기증 '부활의 성가' 등 18점 전시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방혜자의 작품은 한국과 프랑스 두 세계 사이에 떠 있는 막처럼 보입니다." (자비에르 레이프랑스 풍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장)

지난달 25일 파리 풍피두센터에서 방혜자(1937~2022) 회고전이 개막했다. 유족이 풍피두센터에 작품을 기증하며 마련된 전시다. 5층 전시장 2곳에 초기작 '부활의 성가'(1972)를 비롯해 가족 기증작 13점과 미술관이 따로 사들인 1점 등 작품 18점이 전시됐다.

처음 공개되는 작업노트, 다큐멘터리 영상 등 아카이브도 함께 나왔다. 다지와 부지포 앞뒤로 채색해, 스며들고 우러나는 그의 그림이 은은한 빛을 발했다.

풍피두센터에서 개인전을 연 한국 미술가는 2017년 이응노(1904~89) 이후 그가 처음이다.

방혜자는 '빛의 화가'였다. 생전 그는 "빛이 내게로 왔다"고 했다. 첫 만남은 나고 자란 경기도 고양군 능리(지금의 서울 광진구 능동)에서의 어린 시절. "몸이 약해 늘 개울가에 앉아 놀았어요. 수초와 자갈, 물결이 햇빛에 찬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며 '이런 것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 생각했죠."(2016년 현

대화랑 전시). 후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때 수면에 반짝이던 그 찬란한 빛을 씨앗 삼아 그림을 그려나갔다.

서울대 미대 졸업 후 1961년 국비장학생 1호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파리 국립미술학교와 국립응용미술학교 등에서 채색 유리를 비롯해 프레스코화·이콘화·판화 등 다양한 화법을 익혔다. 실험 재료는 바뀌었지만 주제는 늘 한결같이 빛이었다. 그는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평화"라고 했다.

재료는 자연에서 온 것들. 다나무 줄기로 만든 종이, 흙과 광물성 천연안료와 식물성 염료, 식물성 정유로 만든 접착제를 썼다. 다지를 구겨 천연염료로 색칠한 뒤, 뒤에 또 색을 칠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빛의 파동과 울동을 표현했다.



'빛의 화가' 방혜자 (사진 방혜자 가족)

도 맞닿아 있다. 파리 길상사, 서울 개화사, 광주 무각사 대웅전 후불탱이 그의 작품이다.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로 등록한 샤르트르 대성당의 2018년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에도 선정됐다. 대성당이 종교참사회실의 보수를 마치며 높이 4m 스테인드글라스 창 4개를 장식할 작품을 공모했는데, "빛은 생명이고, 기쁨이며 평화"라는 그의 제안이 채택됐다.

당시 선정 소식에 친분 있는 프랑스 배우 윌리엘트 비노슈는 "감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움! 모든 창과 문을 혜자의 빛으로... 브라보 혜자!"라고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방혜자는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완공한 이듬해인 2022년 파리의 병원에서 85세로 눈을 감았다. 전시는 내년 3월 9일까지.

권영기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다더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무보임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되’와 ‘돼’

‘되어서야’와 ‘되었다’를 줄여 보자. 의외로 오답을 내는 이가 많다. “엄마가 되어서야 딸이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돼서야 딸이 됐다”가 바르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도 마찬가지다. ‘되어야’는 ‘돼야’로 축약된다. “엄마가 되니 엄마가 보인다”는 어떨까? ‘되니’는 더 줄지 않는다.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모음 어미 ‘-어/-어서/-었-’ 등이 붙어 활용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해 ‘돼/돼서/됐다’와 같이 ‘돼’로 적는다. 자음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는 줄어지지 않으므로 ‘되고/되니/되면’처럼 ‘되’로 표기한다.

사실상 발음으로는 ‘되/돼’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혼동을 주는 요인이다. “안 되요”와 “안 돼요”, “안 되죠”와 “안 돼죠”가 특히 헷갈린다.

구분법은 간단하다. ‘돼’는 ‘되어’가 축약된 말이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되어’를 넣어 보면 된다. 자연스러우면 ‘돼’로 표기하고, 어색하면 ‘되’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안 돼요”의 ‘돼’를 ‘되어’로 바꾸면 “안 되어요”가 돼 부자연스럽다. “안 되죠”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죠’는 어미 ‘-지’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지요’의 준말이므로 “안 되지요”, “안 되죠”로 써야 한다. “안 돼요”의 경우 ‘돼’를 ‘되어’로 바꿔도 자연스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인 입양인’ 이슈에도 관심을



최인성
LA중앙일보
N팀 팀장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화해위)’에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화해위는 지난 5월 9일 일부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해위 측은 총 367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아로 분류됐던 30~50명은 친부모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공개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존재로 인해 이들은 기아호적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부가 호적 생성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친부모 관련 서류가 폐기되거나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임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양인들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추정했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입양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필요하다.

한인 사회가 입양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입양인을 ‘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전쟁으로 인한 아픈 상처로 생각하고 있어버리고 싶어한다. 아니면 일부는 안쓰럽다

며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지원 문제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할 것이 더 많다. 홀트나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10만 명이 넘는 입양인,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 등 관계 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입양 과정에 비리가 있었고, 이를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를 묵인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화해위는 관련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과 비리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약 범법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도 묻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해 한국이 국제 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집단의 상처는 유산이 되고 장애로 남는다. 미국 내 입양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는 미국인의 기억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이런 흔적은 한국이 반도체 왕국이자 BTS를 보유한 멋진 나라라는 생각으로도 지우기 힘들지 모른다.

이 아침에

그녀의 담배 연기



이리나
수필가

가방이 떠올랐다. 잠시 언니네 집에 다니러 간다는 말에 비해 짐이 많았다. 갈 곳 없어 방황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이십 대.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 하겠지.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에 없다. 하지만 정작 터놓고 싶은 속담은 끝내 운도 떼지 못했다. 우린 어떤 연유로 만났을까.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안동에서 시작된 비는 우리를 쫓아오며 계속 내렸다. 어느덧 버스는 휴게소에서 멈췄다. 야외 스피커에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다. 매점에서 산 김밥과 삶은 달걀을 건네자,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손에 쥐었다.

담배를 깊이 들이마신 여인이 한숨처럼 내뿜은 연기는 허공에 흩날렸다. 축축한 공기에 연기는 곧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의 눈에 잠시 고인 눈물을 본 것은 단지 기분 탓이었을까.

마침내 버스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동안 굶어지던 비가 거세게 내렸다. 슬며시 가슴 아린 미소를 짓고 돌아서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점점 멀어져 가는 비에 젖은 트렁크만 한참 응시했다. 이름도 모르고 이제는 얼굴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여인. 만약 감정에 고리가 있다면 우린 이때 서로 영쳤다.

비가 한번 거나하게 내린 것 같은데, 그사이 삼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각해 보면 애잔한 비오는 날이었다. 아직도 긴 생머리를 하고 있으려나. 소나기처럼 내리던 고난을 잘 이겨냈을까. 흐르는 세월 속에 함께 한 짧은 만남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아쉽고 생각이 날까. 내가 무엇을 잃었던가.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가던 뒷모습이 가슴에 박혔으니, 가슴은 알겠지.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어머니는 뱀꿈 꾸면 짐 썼다... '뺨갱이 아버지'가 새긴 원죄



내 문학과 젊은 시절을 이야기를 하며 연좌제(緣坐制)를 빼놓을 수 없다. 1950년 9월 아버지의 월북이 가족들에게 강요한 생존 환경은 끔찍하고 고달픈 것이었다. 연좌제는 아버지의 공산주의 부역(附逆)을 고스란히 가족들의 원죄(原罪)로 뒤바꿔 놓았다.

젊은 어머니와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찰의 소재 파악에 시달려야 했다. 30대 중반에 월북한 아버지가 언제든 간첩으로 남파돼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6.25라는 피투성이 내전을 겪으며 피해의식을 키운 어머니는 어머니 대로 별난 생존 원칙을 고집했다. 전쟁이 다시 터졌을 때 개전(開戰) 직후에 체포되지 않도록 항상 경찰의 소재파악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운 나쁘게 체포되더라도 반드시 도회지에서 체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역자 학살이 대개 개전 직후 신속하게 이뤄졌고, 대도시에서는 법적 절차가 살아 있어 마구잡이 학살이 자행되지는 않았다는 전쟁 체험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이 찾아오면 우리는 떠났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야반도주나 다름없는 이사를 당연한 것처럼 다녔다. 덕분에 어린 나는 영문 모르고 때 맞는 아이, 일찌감치 뿌리 뽑힌 신세였다.

어머니 꿈엔 신통력... 형사들 들어타쳐

어머니는 뱀이 파리를 들고 있는 꿈이나 이빨이 뭉툰 빠지는 꿈을 꾸면 그날로 이사를 서둘렀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면 신통력이라도 생기는 것인지 결국 꿈이 들어맞는 경우가 적지 않아, 며칠 안으로 낯선 중년 남성들이 들어타쳐 이 것저것 캐묻곤 했다. 지나고 보면, 경찰서 대공(對共) 담당 형사들이었다.

형사의 불길한 방문을 받으면 이사는 대개 한 달을 넘기지 않고 감행됐다. 어머니는 언제든 이사를 떠날 수 있도록 살림을 항상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버들고리짜 하나와 이불 보통이, 부역살림을 담은 사과 껍질, 나와 여동생의 책보따리가 살림의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세 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단칸방을 빠져나와 야간열차에 오르는 식이

이문열씨 아버지 이원철씨 사진. 위에서 둘째 줄 오른쪽이 이원철씨다. [사진 이재유]

었다. 그런 잠행이 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될 때까지 반복됐다.

57년 경북 안동에서 서울 안암동으로 이사한 것도 그런 잠행의 하나였다. 안동의 중앙국민학교에서 2학년까지 마친 나는 안암동의 중앙국민학교 3학년으로 전학했다. 어머니가 안암동을 선택한 건 고향 영양 출신의 한 독지가가 세운 일종의 기숙사가 거기 있어서였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5개씩, 10개의 방을 갖춘 건물에 영양 출신 학생들을 하숙집보다 과격적인 조건으로 머물게 해줬다. 성인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쌀 서말을 먹는데, 그 두 배인 여섯 말을 내면 먹여주고 재워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고대생은 물론 단국대·동국대생도 있었다.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빨래 같은 건 해주지 않았지만, 밥을 해주는 사실상 식모였다.

80년 연좌제 폐지, 전두환 좋아질 정도

안암동 시절 역시 형사의 방문으로 끝난다. 불쑥 나타난 신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를 풀빵 집으로 이끌었다. 어느새 풀빵이 수북이 쌓인 접시를 앞에 두고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문득 얼음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오싹했던 기억이 난다.

오래도록 아버지는 내 기억에 없는 존재였다. 아버지가 월북했을 때에는 생후 2년 3개월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사진 한 장 변변히 남아 있는 게 없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그나마 몇장 안 되는 아버지 사진을 모조리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빛바랜 사진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건 한참 뒤인 서른 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나는 아버지 친구분이 보관하고 있던 낡은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렵던 시기에도 고향 영양에는 우리 가족이 의지해 살아갈 만한 넉넉한 전답이 있었다. 하지만 제값 받고 팔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다른 방도가 모두 끊기면 전답을 팔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 그런데 고향 땅에 눌러앉아 무작정 땅이 팔리기를 기다리거나 일부라도 팔리는 날엔 그동안 생긴 빚을 갚거나 하며 1년가량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외가 쪽은 흥청거리는 기질이 있었다. 웬만큼 돈을 손에



1 이문열씨의 어머니 조남현씨는 전쟁 피해의식에 시달렸다. 젊은 시절 소설가 이문열씨(오른쪽)와 조남현씨. 2 초등학교 시절 이문열씨. 뒷줄 오른쪽 둘째가 이문열씨다. [사진 이재유]

1950년 9월 홀로 월북한 아버지 남겨진 가족들 계속 경찰에 시달려 형사 찾아오면 야반도주처럼 이사 어머니 언제는 떠나게 살림 최소화

주면 그때부터 온 가족의 씬움이 커졌다. 탕수육을 사 먹거나 형과 누나가 양복이나 시계를 장만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두어 달 지나면 또다시 빈손이었다.

내가 연좌제의 폐해를 뚜렷하게 인식한 것은 대학 진학 후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다. 어느 날 가르치던 아이들의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학교에서 데모하다 퇴학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일이 있었다. 낮에 경찰이 찾아와 나에게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것이었다. 쫓기듯 가정교사 자리를 옮겨왔지만 한 달 후쯤 경찰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느새 나는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처럼 경찰의 정기동향보고 대상이 돼 있었다.

군 제대 후 대구의 고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연강(連講)을 마치고 강사실로 돌아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역시 경찰이 다녔던 것이다. 나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깊게 사귀면 안 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변에 심어줄 수밖에

내가 두돌 때 떠나 기억도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진 다 찢어버려 연좌제 탓 가정교사도 계속 쫓겨나 30대까지 사상편력도 아버지 영향

에 없다.

그래서 78년 대구 매일신문 기자가 되자 내가 서두른 일 중 하나는 경찰서에서 수조문해 나를 담당하는 형사를 찾아낸 다음 내가 먼저 연락해 만난 일이었다.

사대 국문과로 대학 전공이 좁혀진 것도 연좌제로 인해 다른 길이 막혀 있어서였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시에 도전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통과한다 하더라도 관·검사 임용은 불투명했다. 80년 10월 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 조항이 명문화돼 공포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감성적으로 좋아질 정도였다.

그 많던 재산을 이데올로기에 불들린 아버지가 모두 날려버려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 감정은 이십 대 중반 ‘오디푸스 콤플렉스(부성 살해충동)’라는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은 곧 아버지에 대한 서늘한 회한에 길을 내줬다. 나는 내가 부정하고 짓밟았던 아버지의 흔적을 돌아보게 됐다. 10대 후반에 시작돼 30대 들어서 끝난 내 사상 편력은 아버지 살해와 아버지 찾기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흔적이었다.



사회주의 서적 보관하다 대구고검 압송 일본에서 출간된 소화(昭和)판 사회주의 사상신서 넷째 권을 갖고 있다가 문

제가 됐던 것도 사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에서 남인천처럼 지내던 10대 후반, 어머니의 사촌 친척 집에서 그 책들을 발견하고는 나중에 읽을 생각으로 집에 가져와 보관했다. 폴란드 출신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이 신서 1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동아대를 다녔던 둘째 형님이 동생이 금서를 가지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게 탈이 났다. 일본으로 밀항하다 붙들린 형님 친구들 입을 통해 내게 불뚝이 튀었다. 나는 부산에서 붙들렸지만 부산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대구의 고등검찰청까지 압송됐다.

내 혐의는, 월북해 아버지를 만나고 6개월간 밀봉 교육을 받은 다음 그 책들을 가지고 내려와 사람들을 월북시키려 했다는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그 6개월간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대야 했는데 내가 다녔던 술집이나 친구 집에서 그런 증명이 가능할 리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돼 결국 처벌을 면했지만 며칠 고생해야 했다.

대구 학원 강사 시절에는 국내 2세대 아나키스트 하기탁(1912~97) 선생과 교류한 적이 있다. 당시 선생은 철심이 가까웠는데 내가 아나키즘에 관심 있어 하자 나를 젊은 동지라고 부르며 반겨줬다. 선생을 통해 접한 아나키즘은, 일제가 악의적으로 변역해 잘못 알려진 부정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국가주의적 억압이나 자본주의적 착취, 생존 경쟁에 따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정치사상이었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지향했다. 선생은 아나키스트를 자주인(自主人)이라고 불렀는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돼 자유로운 인간생활을 해나간다는 뜻이었다.

선생이 읽기를 권한 러시아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의 『현대과학과 아나키즘』에는 가슴 저릿할 만큼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았다. 순정하고 정직한 이념의 아름다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신뢰와 애정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난다. 젊은 나는 그것이 이념일 망정 아름다운 것이면 허무주의에도 반하고 아나키즘에도 반하곤 했다. 물론 그 이념을 실천에 옮겨 운동이 되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3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의 연좌제 폐지 방침 소식을 전한 1980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지면. 4 2세대 아나키스트 하기탁. 생전 이문열씨와 교류했다.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비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러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한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쉐넬리 지역]

시설

선거 없는 2년... 경제 살릴 구조개혁 서둘러야

연금·재정 개혁 방안 등 실기하지 말기를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은 정부의 경제 진단과 구체적 해법이 담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다듬고 정교하게 버리는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방 자료는 14쪽에 불과하다. 그 대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강조했던 역동경제 로드맵(69쪽)을 같이 내놨다. 단기 대응은 경방에, 구조적 문제 해결의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로드맵에서 생산 요소인 자본·토지·노동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눈에 띈다. 자본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밸류업으로, 토지는 산지·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토재창조 프로젝트 등의 이용 규제 완화로, 노동은 집단인재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이다. 밸류업에는 주주환원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배당증가 금액 저율과세, 최대주주 지분 상속세 할증 폐지

등이 포함됐다. 생산 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의 대부분은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설득으로 넘어야 한다.

더구나 임금체계 합리화,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의 노동개혁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직업고 강화 등의 교육개혁은 로드맵을 거론했지만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은 빠져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무거워질 미래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하루빨리 올려야 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세율의 합리적 조정 등 중장기적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라며 중요한 개혁을 뒤로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역시 시급하다. 선거 없는 향후 2년, 이런 개혁 조치를 얼마나 마무리하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25조원 소상공인 대책... 지원 넘어 경쟁력 강화 모색을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어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전기료와 이자 등 경영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도 담았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소상공인 맞춤형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 하나다.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5%(2022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성인 사회안전망에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다. 그렇다 보니 생계형이나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20·30대 비중이 2019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빛으로 버티던 이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았다.

빚에 허덕이고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 이들의 구제를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조정과 개혁, 자영업 고도화를 위한 고용 및 산업 전략은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한 구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그저 돈만 쏟아붓고 효과는 미미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차등 적용 무산, 최저임금 인상 폭 최소화로 충격 줄이길

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경영계는 음식점과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은 명목상 52.4%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상승 폭은 82.9%까지 된다. 문제는 이렇게 오른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업종마다 고용 여건과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은 기형적이다. 그 결과 '나 홀로 사장'과 '쫓개기 알바'가 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곳도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

당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나 된다. 법정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533만 명(24.3%)이다. 숙박·음식점업(55%)과 5인 미만 사업체(49.4%) 근로자는 절반에 이른다.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강요하는 건 불법자만을 양산할 뿐이다. 복잡해지는 경제 구조 속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도 차등 적용을 위한 업종 임금 실태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차등 적용은 무산됐지만, 최저임금 상승 폭을 최소화해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 노사 협상과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브루투스, NYT, 아소 너마저...”

(뉴욕타임스)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1 고대 로마의 황제 시저가 14명의 원로원 의원들의 칼에 찔려 쓰러질 때 내뱉은 말은 “에트 투 브루테(브루투스, 너마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1599년)에 이 대사가 생생하게 등장하며 정설처럼 굳어졌다. 시저는 처음에는 칼에 찔리면서도 살기 위해 저항했다. 하지만 그토록 아끼고 총애했던 브루투스가 자신을 향해 단검을 빼드는 걸 본 순간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한탄의 절규를 내뱉는다. 지난달 29일 바이든-트럼프 TV토론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절친, 지지 세력이 가장없이 등 돌리는 것을 보며 ‘브루투스, 너마저...’가 떠올랐다. ‘배신’의 선봉에 선 게 바이든의 든든한 지지 매체였던 뉴욕타임스(NYT). 바이든의 23년 절친인 프리드먼은 “내 생애에 이렇게 가슴 아픈 대선 장면은 없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실은 “지금 바이든이 공적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재선 도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2 일에는 “몇 달 전부터 깜짝하고 대화할 때 갈기를 잡지 못하는 횡수가 찾아졌고 그 횡기를 막았다. NYT의 용단폭격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바이든 입장에서 ‘뉴욕타임스, 너마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2 일본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재임 1000일을 넘기며 장수 총리의 반열에 올라선 기시다는 자신의 최대 후견인이었던 아소 전 총리,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의 ‘배신’에 직면해 있다. 기시다는 3년 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기시다·아소·모테기와 등 3개 파벌의 연합으로 승리했다. 그동안 이 세 명의 파벌 총수 회동에서 사실상 기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됐다. 그런데 기시다가 자민당 파벌 해체를 선언하고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졌다. 얼마 전에는 아소·모테기가 기시다 총리만 빼고 둘만 별도로 3시간30분 회동하는 장면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했다. 45년 진흙탕 일본 정치를 주물러 온 아소의 노회한 배신이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

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기사दार론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셈이다. “아소여, 너마저...”다.

#3 우리 정치는 또 어떨까.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프레임은 ‘배신의 정치’로 흐르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외친다. 한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을 들고나온 건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행위란 주장이다. 실제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던 한 후보의 배신에 더욱 아파하고, 분해하고, 괴심해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새어나온다. 하지만 한 후보는 배신의 프레임 자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외친다. “난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윤석

아끼고 의지하던 이들의 배신은 시저도, 바이든도, 기사다도 흡사 ‘한동훈 너마저...’ 공세 성공할까

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다시 오버랩되는 게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그리고 ‘친시저’를 사수한 안토니우스의 장례식장 연설 장면이다. 먼저 브루투스가 외친다. “시저의 용맹함과 위대함은 나도 물론 존경하지만, 그는 왕이 되려고 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브루투스가 감했습니다.” 그리고 명대사. “나는 시저를 사랑한다. 그러나 로마를 훨씬 더 사랑한다.” 시저 개인보다 더 큰 가치가 로마라는 주장이다. 한동훈의 말과 흡사하다. 이어 안토니우스가 격정의 반박에 나선다. “시저가 브루투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시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울면 따라 울었다. 그 시저를 브루투스가 찔렀다. 그 순간 나도, 로마 시민 여러분도 모두 쓰러지고 만 것이다.” 원희룡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군중은 브루투스가 아닌 안토니우스의 손을 들어줬다. 반전이였다. 오는 23일, 로마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것인가. **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88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편집국장: 김종윤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사 인쇄: 대림인쇄사(주)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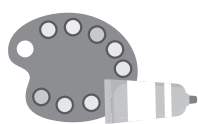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Bank of Hope 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Bank of Hope 행정상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중앙일보 사장상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해피빌리지상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전 부문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BIG SALE FOR THE BBQ

Be the Best BBQ on the Block

Head-on Shrimp
머리새우

\$4.99

20-30'S/LB

HAI O

Korean BBQ Sauce (Marinade)
해오름 소갈비 / 불고기 양념

So Low, Stock up Now!

2 \$5.99 FOR

BEEF SHORT RIB / BEEF BULGOGI
1.85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금사빠’는 금물, 위험신호 꼼꼼히 체크하라

오피하우스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이상신호

지금 당장 이사해야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오피하우스는 중요한 이벤트다. 관심있는 매물을 직접 방문해 집을 꼼꼼히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오피하우스에 가면 주택 외관과 인테리어 외에 무엇을 어떻게 둘러보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경우가 많다. 물론 나중에 인스펙션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지만 오피하우스에서 미리 필터링할 수 있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오피하우스 시 예비 바이어가 꼼꼼히 살펴야 할 이상 신호들을 알아봤다.

영성한 수리, 어수선한 집은 잘 살펴봐야 강한 탈취제 냄새 곰팡이 은폐 가능성도

▶어수선한 집
집 안 곳곳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혹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둘러볼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물건이 많아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것이 주택 결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인스펙션을 위해 물건들을 좀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셀러가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뒤에 터마이트 피해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어수선한 집들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비단 터마이트뿐만 아니다. 벼룩과 진드기 등 다양한 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악취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심한 탈취제 냄새
오피하우스 시 많은 셀러들이 방향제나 탈취제를 이용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 한다. 그러나 향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심하다면 이에 대해

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방향제나 탈취제 사용 시 너무 과하게 뿌려 단순히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는 곰팡이나 설치류 피해 흔적을 감추기 위해 탈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분 리그
“살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르면 예비 바이어와 함께 간 오피하우스에서 우드 플로어 거실에 부분 리그가 깔려 있었는데 셀러는 “손자들이 놀러 오면 폭신하고 편하게 놀라고 깔아 둔 것”이라며 “나중에 치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바이어는 그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후 그 리그 밑에 전 주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썩고 굶어서 바닥이 3피트 가량 패어 슬레이브 바닥이 노출된 것을 알았다. 이런 황당한 난관을 막기 위해서는 오피하우스 방문에서 의심



오피하우스 방문 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판단하고 이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unsplash.com 제공)

려운 부분 리그가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들춰볼 필요가 있다.

▶아웃
오피하우스는 보통 조용한 낮 시간에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동네와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집 자체보다는 이웃일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말 밤 주택 근방을 차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는 이웃이나 너무 시끄럽게 파티를 여는 이웃 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주말 밤이기 때문이다.

▶영성한 수리
오피하우스에 갔다가 영성하게 수리된 곳을 봤다면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주로 영성하게 수리된 곳은 집주인이 직접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DIY 수리는 작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도 영성하게 수리한 것이 티가 난다면 배관이나 배선 등 큰 프로젝트도 잘 됐을 것이라 보장이 없다”고 설명한다. 또 “이 수리 자국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 발견했다면
오피하우스 방문 시 예비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를 지양하는 것이다. 즉 외관만 보고 혹은 실내 인테리어만 보고 사랑에 빠져 덜컥 구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주현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디시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상가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사무실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사무실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해실 회사찾습니다	Beer & Wine Shop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	사무실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상가 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열매컴퍼니
아트앤가이드
(2018년 10월 오픈)
총 모집 작품 수
178점
누적 모집 금액
457억원

영화 '조각 투자' 공동구매에서 신종 증권으로 '화테크'도 진화한다

(그림+재테크)

미술품 조각 투자 국내 도입 6년째
“소유 민주화” vs “투자 상품 전략”
논란 여지 있지만 점차 뿌리 내려
작년말 공동구매 → 투자계약증권 변경
이우환 단색화 등 청약 미달 줄이어
증권사 계좌 통한 절차 부담 느낀 듯

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후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초자산은 또 다른 단색화 거장인 윤형근의 '무제'(5억2000만원)다. 또한 플랫폼 아트투게터를 운영하는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터아트는 일본의 인기 작가 나라 요시토모의 '연못 소녀'(8억6700만원)를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그간 한국내외의 경매사나 화랑, 딜러 등에게 작품을 구입한 후 평균 1년 전후로 보유하다가 판매하여 차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동구매형 조각 투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평균 매각 수익률은 열매컴퍼니 25%, 서울옥션블루 22.4%, 투게터아트 39%에 달한다.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전환한 뒤에도 이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바뀌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열매컴퍼니의 1호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6.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실제 청약 납입 물량에서 공모가액에 미달해서 17.9%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서울옥션블루는 미국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아트투게터는 구사마의 또 다른 '호박'과 미국 인기 작가 조지 콘도의 작가의 '광기의 지평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지만 모두 청약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 또다른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 테사(Tessa)는 아직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옥션 블루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증권사 계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구매 투자자들이 달라진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발행하며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내 미술시장 양극화 더 심해질 우려”
한편 키움증권의 심수빈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큰 이유는 미술 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라 단기간 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술시장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2022년에 비해 위축되면서 거래 규모와 시장 규모가 각각 17%, 12.8% 감소했다. 심 선임원은 “다만, 토큰증권 제도화 완료 시 장외거래시장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시장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유통 시장 형성을 기반으로 활발한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

서울옥션블루 서울옥션 자회사
소투
(2021년 1월 오픈)
196점
268억원

‘단돈 10만원으로 김환기·윤형근 그림을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슬로건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미술품 조각 투자’가 한국내에 도입된 지 6년째다. ‘조각 투자’는 그림을 물리적으로 조각 내는 대신 그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 ‘부자가 아닌 사람도 유명 작가의 그림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민주화’라는 긍정과 ‘예술을 오로지 투자 상품으로 전략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술품 조각 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기존의 공동구매 형태에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바뀌면서 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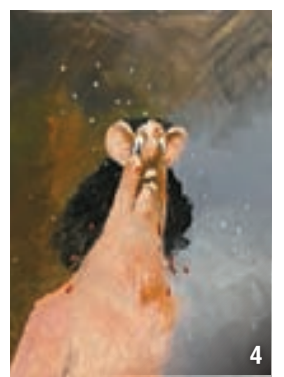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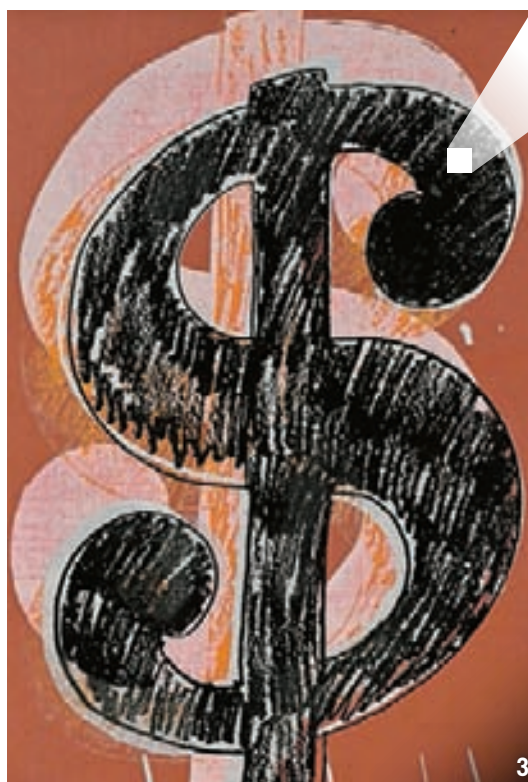
평균 매각 수익 22%~39%에 달해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지난 21일~24일 제2호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받았다. 기초자산은 단색화(수행성을 강조하는 단색조 추상화)의 대가인 이우환의 대형 유화 ‘다이얼로그’다. 총 발행 규모, 즉 그림 값은 12억3000만원으로, 투자자마다 10만원 짜리 주(지분)를 최소 1주에서 최대 300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청약 결과를 보니 경쟁률은 1대 1에 약간 못 미친 98.7%였다. 지난해 12월에 열매컴퍼니가 한국내 최초로 발행한 제1호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경쟁률 6.5대 1에 비해 줄어든 모양새다. 1호 증권의 기초자산은 유명한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아크릴릭 회화 ‘호박’이었다.

과거의 공동구매는 민법상의 공유물의 형태이고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신종 증권’의 일종으로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다. 회사는 새로운 투자계약증권을 낼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내 양대 미술경매사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자회사들도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에 뛰어들지 수년째다.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는 서울옥션블루는 최근 제2호 투자계약증권



테사
테사
(2020년 4월 오픈)
52점
312억원



투게터아트 케이옥션 자회사
아트투게터
(2018년 10월 오픈)
154점
147억원



1 구사마 야요이 '호박'(2001), 열매컴퍼니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발행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다. 2 뱅크시의 'Love Rat', 테사가 2021년 공개구매를 실시해 1분 만에 완판했다. 3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1981), 서울옥션이 지난 1월 발행한 1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4 투게터아트(케이옥션 자회사)는 조지 콘도의 '광기의 지평선'(2001) 투자계약증권을 지난 3월에 발행했고, 5 나라 요시토모의 '연못 소녀'(1995)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각 회사]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콘도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310,000** **\$880,000** **\$1,200,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방1, 화1, 차고1, 2007년산 엘리베이터, Large Fitness, 세탁기&드라이어 In Unit, 24/7 Concierge SVC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방4, 화3.5, 차고2, 정원이 아름다운 코너집, 리모델링 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이우환·구사마 작품 등 블루칩 위주, 4060 고객 중심 300만원 정도 투자”

“우스갯소리로 ‘한국 미술시장은 10년 주기로 한 번 잘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10년 동안 침체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미술 금융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외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작품을 샀을 때 작품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작품을 사게 되겠죠. 작품을 사면 (그만큼 현금이 없어진 상태로) 모셔 두기만 해야한다면 누가 그렇게 쉽게 그림을 살 수 있겠어요. 한국은 미술품 담보 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대신 조각 투자가 뜨게 된 것입니다. 미술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것이 저희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내 1호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인 열매컴퍼니의 김재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18년 한국내 최초로 미술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역시 한국내 최초로 미술품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열매컴퍼니 수장고에서 그를 만났다.

김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동안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다. 대체투자 자문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미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릴 때 예술가를 꿈꿨던 때문도 있었다. 회계법인 퇴사 후 사모펀드에 일하면서 아트펀드를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미술품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펀드 매니저들이 미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미술계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간송미술관 입사를 감행했다. 그전 연

한국내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금융상품화 조장? 비난 이해하지만 정말 자산가치 있다는 것 알릴 필요
미술 시장 유동성 있어야 더 성장
평균 수익률 25%, 공구 재구매 65%
신진 작가 후원, 무료 전시 주선도

봉의 5분의 1을 받으며 3년 반 정도 미술과 미술계에 대해 공부한 후 2016년에 지금의 열매컴퍼니를 창업하게 됐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열매컴퍼니는 그림 지분 투자에 언제 함께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저희가 지금까지 170여 점의 작품을 공동구매를 하거나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받았는데, 그중 한 작품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투자에 참여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술품으로 돈 벌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책임을 졌다. 덕분에 수익도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별도의 마케팅이 거의 없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재구매를 하신다.”
 - 수익률과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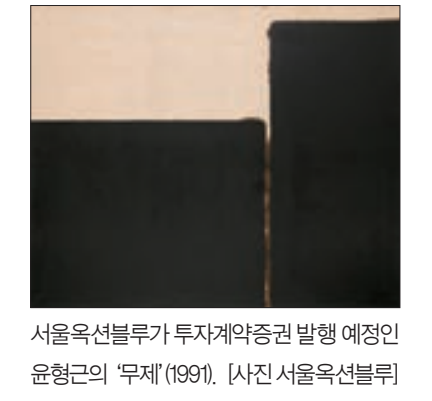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의 창립자 김재욱 대표가 지난달 25일 자사의 서울 강남 수장고에서 중앙SUNDAY와 만났다. 최영재 기자

“평균 수익률은 25% 정도이다. 또한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거의 65% 이상 되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전환하면서 만기가 길어지고(3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니까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 플랫폼 사용자는 주로 MZ컬렉터인가?
 “저희는 플랫폼을 웹과 앱으로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웹 사용자가 좀 더 많다. 다른 조각 투자 회사들은 MZ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우리는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한다. 투자 금액 비중으로는 40대~60대가 월등히 높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 주로 인당 구매액이 한 20만~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는 인당 구매액

이 한 200만~300만원 정도로 10배에 달하는 구매력을 지닌다.”
 - 지금은 가격 측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저희가 미술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세계에 있는 경매사의 과거 20여 년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클렌징을 한 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했다. 미술 시장 전체와 개별 작가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서 볼 수 있고, 개별 작품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추정가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하려는 작품의 제안 가격이 그 범위 상한선보다 높으면 매입 의사 결정에서 배제한다.”
 - 잘 팔리는 소위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만 거래하며 예술을 금융상품화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는가?
 “그런 비난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역할의 프라이머리 마켓이 아닌) 세컨더리 마켓이고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자산들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저희의 역할로도 미술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블루칩인 이우환과 윤형근 화백조차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가 안 된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김환기·윤형근 이우환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이 정말로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술 시장에 대한, 나아가 작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프라이머리 마켓에도 눈이 열리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술을 공부하면서 개인 컬렉팅도 해왔다고 들었다.
 “총 300여 점 정도 있는데, 그중 200여 점이 신진 작가 작품이다. 아트페어를 많이 다니면서 신진 작가들 작품을 보고 괜찮으면 산다. 80~100여 점은 유명 작가 작품인데 윤형근·박서보·이우환 화백의 원화가 있고, 또 판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김환기 화백의 뉴욕 시대 전면점화를 너무나 갖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다. (웃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소장품으로 사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저희 회사가 유명 작가의 세컨더리 마켓으로서 수익을 내면, 그 일부는 신진 작가에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진 작가 공모전을 해서 상금을 드리고 무료로 전시를 열어드리는 것 같은 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KBS 신진 작가 경연 프로그램 ‘노머니 노아트’ 제작비를 후원하기도 했다.”
 문소영 기자

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형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새 국회에서 언제 발의될지조차 아직 알 수 없다.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미술품 토큰증권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어 유동성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술 시장이 1조원까지 컸는데 미술 금융 시장 규모는 500억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구에서는 미술품 조각 투자가 미술 금융의 주류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구



서울옥션블루가 투자계약증권 발행 예정인 윤형근의 ‘무제’(1991). [사진 서울옥션블루]

미술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적정 가격 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미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미술품 조각 투자다. 거래소 유통이 가능한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유통할 수 없는 지금의 투자계약증권보다 유동성 공급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다.”
 한편 조각 투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술가는 이렇게 평했다. “조각 투자 대상 작품들을 보면 유명하고 인기 많은 소위 ‘블루칩’ 작가들이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대신 그 몇백만 원 돈으로 이미 성공한 대형 화가 그림의 소유권 한 조각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지지 않겠는가? 또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작품을 샀다가 곧 파는데, 예술을 오로지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해 열매컴퍼니 김 대표는 “저희 조각 투자 플랫폼에 오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호기심이 있고 그렇다고 딱딱 한 점을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테스트 삼아 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니 작품과 작가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진정한 예술적 관심을 갖고 즐기게 된다. 그러면서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사기 시작하는 분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 감독을 역임한 이대형 큐레이터는 “확실히 작품에 대한 조각 투자는 금융상품 같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투자 방법이 작가 프로젝트에 대한 조각 투자와 함께 가면 진정한 예술 후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평했다. “예를 들어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서 이완 작가의 설치미술 ‘고유시’를 제작하기 위해 벽식계로 가득 찬 방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때 조각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들은 전시가 끝난 후 투자액에 따라 작품의 일부인 시계를 받았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면 예술 상품화에만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소영 기자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89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숯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Dumfries Town 급매!! 3 br 3.5 baths, 1 car, 1,772sf Walkout Bsmt, 2005 \$410,000 (시세 \$50만)	Gainesvill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 car Walkout Bsmt, 2002 \$570,000 (시세 \$67만)	Silver Spring Town 급매!! 3 br 2+2 baths, 1,464sf End Unit \$400,000 (시세 \$50만)
Woodbridg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car Walkout Bsmt, 1999 \$480,000 (시세 \$60만)	Manassas Single 급매!! 4 br 3.5 baths, 4,200sf 3 car \$690,000 (시세 \$80만)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GIANT REALTY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 수도권 '빈집 쓰나미' 온다

저출생·고령화의 그늘

2040년부터 가구수 감소세 전환 수도권·서울도 빈집 늘어날 전망 "폐가 생기면 주변 번져...대책을"

최근 방만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지역 인근의 빌라촌. 용인시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의 구도심이다. 대로변에는 수년 지난 폐가가 여럿 방치돼 있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채로 방치된 집,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로 가득 찬 빈집, 건축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된 공터도 눈에 띄었다. 한 주민은 "용이고 통학로에 빈집 여러 채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의 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09년 재개발 예비구역(역북1구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탓에 재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주민이 없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이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빈집도 늘기 시작했다.

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8.2%(약 151만 가구)를 차지한다. 1995년 36만 가구에서 25년간 4배 넘게 증가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2.1%)가량이다. 인구가 감소 중인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재고량의 17.9%에 달한다.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빈집 수와 비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드리운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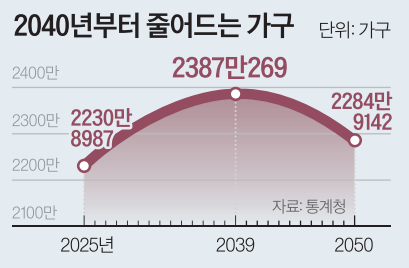
빈집이 늘어나는 건 이론적으로 주택 초과 공급의 여파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은 102.1%.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 많은 경북(113.2%)·전남(112.4%)·충북(111.6%) 등은 11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돈다. 울산(108.4%)·세종(105.6%)·광주(105.2%)·부산(102.6%)·대구(101.4%) 등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선 주택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다.

집값 하락(주택가치 하락)도 빈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도심 빈집의 대부분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중단 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유인이 약해진다.

이런 이유로 가구 수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40년이면 서울·수도권 도심에서도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2033년부터 연간 가구 증가 폭이 1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며, 2039년 정점을 이룬 뒤 가구 수가 줄어든다.

학계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구 수(총 주택 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2040년을 전후해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다. 2040년에는 전국 재고 주택의 30%가량인 855만 가구가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된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



산학과 교수는 "노후주택 증가와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정비사업이 멈추고 빈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324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빈집 증가는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마을의 슬럼화가 진행하면서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고,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을 조려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부도 주거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 노후 건축물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빈집은 한 번 생기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에서 "빈집은 군집성이나 타나며 인근에 빈집이 증가하면 특정 주택이 빈집이 될 확률이 커지는 전염 효과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빈집이 증가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약 2965만원 하락한다'(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 등의 연구 결과도 있다.

빈집은 주요 선진국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빈집이 899만 가구로, 총 주택 중 비중이 13.8%에 달하는 일본은 빈집이 10만 채 늘면 1조5000억 엔(약 13조원)가량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클라소네 분석). 미국에서 빈집은 인근 지역 범죄율을 19% 증가시키



경기도 용인시 김량지역 인근 빌라촌의 빈집. 외벽이 무너져내린 채로 방치돼 있다. 빈집이 늘면 마을의 슬럼화가 진행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은 내려간다. 용인=김원 기자

고, 빈집이 2.8가구 증가할 때마다 지역 범죄율은 6.7%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이 있을 때 내던 주택에 대한 재산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

을 완화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거주 유인을 제공하고, 아울러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이아미 기자



▶ 1면 '오픈하우스'에서 이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픈하우스에 갈 때는 리스팅에서 마음에 들었던 주택에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러 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오픈하우스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에스스로 진행 시 셀러, 바이어, 중개인까지 모두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하우스 투어를 하면서 우려되는 점이나 이상 조짐을 발견하

면 이를 모두 적어 중개인과 상의한 뒤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의 사항

오픈하우스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이다. 셀러가 보는 데서 집에 대한 함담을 한 다가가 집 가격이 비현실적이라는 등 감정적인 말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 집이 드림하우스라든가 원하던 학군이라든가 등과 같은 지

난친 칭찬이나 호감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나중에 집값 흥정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픈하우스 참석 시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 자녀들을 신경 쓰느라 집을 제대로 둘러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역시 무음으로 해놓고 주택 투어 동안은 온전히 투어에 집중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주현 객원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DC 창고 SOLD \$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평센터 SOLD \$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평센터 SOLD \$ 4.5M Popeyes, 연인컴 \$32만	DC NW 아파트 SOLD \$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 930K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 SALE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용자들은 삼고 시대(?)라고 비꼬기도 한다. 이자율도 높고, 집값도 높고, 셀러들의 쿷대마저 높아서 삼고(三高)라며 이른바 현 주택 시장을 잘 풍자하는 한마디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치열한 주택시장이다 보니 주택구입 클로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축하한다는 인사가 이제는 계약이 성사되면 던지는 덕담이 되었을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한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턱없이 부족한 매물의 이 치열한 시장에서 오피에 늘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주택구입 예정자들의 집 사기가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 싶다. 물론 그렇다고 주택계약

성사에만 목을 댈 수는 없는 터, 과연 이즈음 바이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을 통해

서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수록 계약을 파내기도 힘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이 성사된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확한 용자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주택계약에 뛰어들다보니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후 막상 본 용자심사 과정에 들어서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용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곤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계약들이 컨틴전시 없이 이뤄지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만큼 바이어에게 리스크가 뒤따르는 형국이다.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용자 상담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된다.

크레딧이 아주 좋다고, 다운 페이먼트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무조건 주택용자승인이냐는 건 아니다.

종종 단순히 '현재 내가 소득이 얼마고, 크레딧도 좋고, 다운도 많이 하면 용자 나오는데 별문제 없겠지요'라는

문의를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항상 똑같다.

문의한 내용만으로 듣기에 충분히 가능해보이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 가급적 서류를 확실하게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진행하기를 당부 드린다.

문제는 전화 상으로 가능한 것 같다고 한 말 한마디가 마치 용자가능성을 확인한 걸로 많은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주택용자에 있어 여러분들을 상담하는 이들은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맞아야 할 사람 들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주택용자심사는 은행과 용자신

청인간의 문서로 나누는 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든 자산이든, 또한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조건부 설명들을 반드시 은행과 문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개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장 큰 투자가 되는 주택구입을 앞두고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확인 받고 여러 서류들을 검토한 뒤에 진행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올바른 주택용자상담은 모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발생하게 될 필요 외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줄여준다.

주택구입의 큰 프로젝트에서 첫 삽을 뜨는일은 바로 집부터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확실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올바른 용자상담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의: 703-868-7147

첫 주택 구입

주택 구입 과정 중 알아야 할 것들과 이사까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택 보험

컨틴전시 리무브까지 진행되면 거의 집 구입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집 구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험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용자를 받으면 렌더가 클로징할 때 주택 보험료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파이널 인스펙션

파이널 인스펙션은 셀러가 고쳐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셀러가 고쳐줄 부분이 없었더라도 에스스로가 클로징 되기 전에 셀러가 실수로 집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셀러와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

▶용자 승인

은행의 용자 승인 서류가 에스스로에 도착하면 용자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서류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단계가 거의 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금 이체

파이널 인스펙션과 용자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에스스로 회사로 다운 페이먼트를 송금한다. 은행에서 승인된 용자 금액과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 금액, 그리고 셀러가 내야 하는 세금과 기존 용자 등을 에스스로에

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셀러에게 송금된다.

▶소유권 이전

보통 에스스로 클로징 전날이나 당일일에 에스스로 회사로 용자 금액이 송금된다. 그러면 에스스로 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보통 오전에 등기 신청을 하면 오후쯤 이전됐다 고 연락이 온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주의 이름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게 된다.

▶클로징

셀러는 타운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검사를 받고 허가증을 발부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를 만들어서 합의된 날짜에 클로징하게 된다. 클로징 비용으로는 변호사비, 타이틀 검사비, 타이틀 보험비, 집 보험비, 등기비 3개월분 부동산 세금 등이 포함된다. 클로징 후 2달이 지나면 등기서류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성인 자녀나 배우자 이름을 등기에 추가할 수 있다.

▶이사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 에스스로 클로징 후 셀러의 요청이 있다면 약 3일 정도 이사 일정을 늦춰줄 수 있다. 이후에는 바이어가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 된다.

주택 구입의 복잡한 프로세스처럼, 모든 과정이 쉽진 않다. 그래서 리얼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 할 정도로 매번 다른 상황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셀러도 바이어도 의지만 있다면 모든 거래는 성공한다.

애니윤-월드웰빙커 베스트 부동산

하반기 부동산 전망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찌 될 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될게 된다. 그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꽤 되시고 또 폭락하게 될 거라는 분들도 계시다. 20년을 에이전트로 일하는 동안 그런 분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락할 것이다. 또는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하락세로 돌아서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도 하락세일 때도 이런 믿음은 항상 존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은 시장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매물은 소폭 늘어나고 있는 듯하고 거래 성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다. 풀러턴,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전반적으로 복수 오피에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매물들이 여전히 많고 움직임도 비교적 활발하다.

반면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도심은 조금 조용한 편이다. 그 외의 외곽지역들도 '뜨겁다'고 까지 말하긴 힘들어도 꽤 많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라카나, 라크라센타와 같은 지역이나 엘에이 북쪽의 포터랜치, 발렌시아도 어렵지 않게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모기지 이자가 여전히 높은 탓에 바이어들이 눈치 보며 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자가 높이 오른 동안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자 이제는 관망세를 멈추고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바이어들

이 많다. 캘리포니아 중간 주택가격이 9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멀쩡한 집을 사려면 최소 100만 달러인 시대가 왔고 그러다 보니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적지 않은 소득수준이라도 다운 페이먼트가 많지 않은 이상 현재의 모기지 이자로는 70만 달러 정도의 매물이 살 수 있는 최대치인 듯하다. 그것조차도 빛이 많지 않은 경우엔 한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가 내림세로 돌아설 경우 주택 시장은 다시 오름세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전에 낮은 이자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재융자를 한 경우라면 낮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훨씬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걸 가급적 피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본인의 구매 능력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후에 모기지 이자가 내리면 얼마든지 재융자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 이자는 하반기까지는 소폭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량도 그에 맞춰 소폭 늘어나게 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택 가격은 내림세가 아닌 오름세가 되리라고 예상하는 게 맞다. 시장의 움직임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혹은 보험세를 보이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서 주택 구매에 나서게 좋은 거란 생각이다.

윤감-네오집스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REALE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현 주택 리빙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lkrigd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푸른 산호초' 부른 뉴진스 하니, 일본 삼촌팬까지 심쿵했다

도쿄 팬미팅 솔로영상 330만뷰 단발머리에 마린룩 상의, 스커트 "80년대 아이돌 마츠다 되살아난 듯" 중장년층부터 MZ세대까지 열광

"하니가 단 3분으로 40년 전의 일본을 끌어왔다."

결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지난 달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팬미팅 '2024 버니즈 캠프'에서 꾸민 솔로 무대 '푸른 산호초(青い珊瑚礁)'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직캠 영상은 나흘 만에 330만뷰를 돌파했다.

일본 오리콘 뉴스는 "대세 한국 아이돌이 1980년대 일본 노래를 청량하게 부르고 환한 미소를 띠며 객석을 감미로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며 "노래가 끝난 후에도 도쿄돔에는 충격의 여운이 계속되고 환희로 가득 찼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80년대 아이돌의 에너지가 지금 시대에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도했다.

'푸른 산호초'는 일본에서 '영원한 아이돌'로 불리는 마츠다 세이코(松田聖子)가 1980년 발표한 곡이다. 버블경제 붕괴 전 일본의 풍요로웠던 시

절을 환기하는 명곡으로 꼽힌다. 국내에는 '오겡기데스까(お元気ですか, 잘 지내시나요?)'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일본 영화 '리브레터'에 나온 노래로 알려졌다.

하니는 팬미팅에서 당시의 마츠다 세이코를 재현했다. '세이코 컷'이라 불리는 단발머리에 스트라이프 상의와 발목까지 오는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입었고, 순수한 웃음과 청아한 음색으로 일본어 가사를 소화했다. 베트남-호주 국적의 K팝 가수인 하니는 마츠다 세이코의 과거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그때의 감성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전언이다. 현지 음악 전문 매체 '나탈리'는 "마린 룩에 단발머리를 한 하니 모습은 '쇼와(1926~1989년 일본의 연호)의 아이돌' 모습 그대로였다"고 호평했다.

이런 하니의 무대에 일본 국민 아이돌의 추억을 떠올린 중장년층부터 뉴진스의 Y2K 감성을 따르는 MZ세대까지 들쭉했다.

공연에서 좀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일본 팬들이 도쿄돔이 떠나갈 듯 환호하는 장면과 일본 현대 미술의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가 하니의 무대를 보며 흥



에 겨워 춤을 따라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도쿄 한복판 음반가게인 시부야 타워레코드에는 뉴진스 CD 옆에 마츠다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도쿄돔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영원한 아이돌'로 불리는 일본 마츠다 세이코(작은 사진의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모습. 1980년 발표된 곡이다. [사진 어도아오리온])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음반이 놓였다. 뉴진스의 막내 해인이 솔로 무대를 꾸민 다케우치 마리아(竹内まりや)의 '플라스틱 러브'(1985) 음반도 함께 전시됐다. 하니와 해인은 6일 일본 니혼 TV의 생방송 '더 뮤직데이 2024'에 출연해, 각각 '푸른 산호초'와 '플라스틱 러브'를 다시 부를 예정이다.

덩달아 국내에서도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일간 828위였던 이 노래는 이틀 만에 일간 253위까지 순위가 급등했다.

오광수 대중음악평론가는 칼럼에서 "하니는 마츠다 세이코가 시계를 돌려서 무대에 올라온 듯 헤어스타일과 의상, 제스처와 춤까지 재현했다"며 "이 영악한 신예그룹(뉴진스)은 10대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야심을 펼쳐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략은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며 "벌써부터 삼촌 팬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하수영·황지영 기자**

양희영 "파리행 티켓 얼떨떨... 진영·효주와 메달 따겠다"

"사실 파리올림픽은 포기한 상태예요. 우승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죠."

지난달 24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극적으로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양희영(35)과 2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숨 가쁜 일정을 마친 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양희영은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얼떨떨하다"면서 "뜬날 때마다 '메이저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꿈이 이뤄질지는 몰랐다. 더구나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내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양희영은 75번째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드디어 한을 풀었다. 이 대회 전까지 통산 5승을 거뒀지만, 메이저 대회와는



지난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아람코 팀시리즈에 출전한 양희영. 스마일 이모티콘이 그려진 병거 지모자를 가리키고 있다.

유독 인연이 없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종 라운드 중반까지 여유 있게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후반 들어 보기(16번 홀)와 더블보기(17번 홀)를 범해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양희영은 "내 골프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초반에는 긴장했다가 중반 들어

안정을 찾는다. 그러다가 후반 들어서 긴장하곤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4라운드 내내 가슴이 진정되지 않더라. 마음을 다스리느라 혼났다. 다행히 2위 그룹과의 격차를 미리 벌려 놓아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양희영의 세

계랭킹은 25위에서 단숨에 5위로 뛰어올랐다. 그 덕분에 세계 3위 고진영(29), 13위 김효주(29)와 함께 극적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양희영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직전 두 대회에서 잇따라 컷 탈락했다. 샷 감각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우승하면 턱걸이로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파리올림픽은 포기한 상태였다.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양희영은 이제까지 통산 상금 1555만 달러(약 216억원)를 벌어들였다. 한국 선수 중엔 1826만 달러를 받은 박인비(36)에 이어 2위다. 골프로 부와 명예를 모두 이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7월 파리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실력

발휘를 해서 이번엔 반드시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다. 양희영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도 출전했지만, 1타 차로 4위를 차지했다.

양희영은 "리우올림픽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 그토록 뜻깊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면서 "리우올림픽에선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 이번에는 든든한 후배들인 (고)진영이, (김)효주와 함께 메달을 노려보겠다"고 했다.

양희영은 올 시즌 내내 스마일 문양이 그려진 병거지 모자를 쓰고 필드를 누비고 있다. 2022년을 끝으로 후원 계약이 종료되면서 한동안 로고가 없는 민모자를 썼다. 그러다 볼 마크로 쓰던 '스마일 이모티콘'을 우연히 떠올리곤 곧바로 스마일을 새긴 모자를 특별 제작해서 쓰고 다닌다.

양희영은 "모자 앞면이 비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골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고봉준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물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sha: It's about time! I've been waiting since 9 AM!
 마사: 늦으셨네요! 아침 9시부터 기다렸어요!
 Repairman: I'm sorry. I've been very busy today.
 What's wrong with your refrigerator?
 수리공: 죄송해요. 오늘은 아주 바빴어요. 냉장 고가 어떻게 되고요?
 Marsha: How do I know? I had to throw away a lot of food.
 마사: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음식을 많이 버려야

했어요.
 Repairman: It's usually the motor. I'll take a look.
 수리공: 보통 모터때문이지요. 제가 한번 볼게요.
 Marsha: I hope this isn't going to take a long time. I have to run errands today.
 마사: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볼 일이 많거든요.
 Repairman: It won't take a long time.
 수리공: 오래 안걸릴 겁니다.
 Marsha: This isn't going to cost an arm and a leg is

it?
 마사: 아주 비싼 건 아니겠지요?
 Repairman: No it isn't. The motor just needs new wiring. It'll be about \$22.
 수리공: 네. 모터에 새 와이어를 끼면 돼요. 22달러 정도예요.
 Marsha: Can I write a check?
 마사: 수표를 써드려도 될까요?
 Repairman: Sure. Make it out to ABC Repairs.
 수리공: 그러세요. ABC수리소로요.

run errands: 심부름가다, 볼 일을 보다

(Marsha is at home waiting for the refrigerator repairman...)
 (마샤가 집에서 냉장고 수리공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할만한 표현

- ▶ it's about time: 늦으셨네요 (오실 때도 됐죠.)
- "Here's the bus. It's about time. It's twenty minutes late!" (버스가 보이네요. 늦게도 왔군요. 20분이나 늦었어요!)
- ▶ cost (one) an arm and a leg: 아주 비싸다
- "It cost them an arm and a leg to put new carpeting in their house." (그 집은 새 카펫을 까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3) 초승달 모양의 긴 타원형으로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익는 열매 (5) 양편 팔 밑의 오목한 곳 (6) 사리를 분별할 만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 (8)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음. 일이 매우 쉬움 (10) 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 (12) 파충류, 곤충류 따위가 자라면서 벗는 껍질 (13) 얼굴의 근데근데에 생기는 잘고 검은 점 (15)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오늘은 ~의 날이자, 세종대왕의 생일이죠. ~의 은혜는 하늘같이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16)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19) 이른봄 잎이 나오기 전에 노란 꽃이 먼저 핀다 (21)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서 오랜 기간 숙성시켜 먹조 (23) 혈령한 뒷과 바지로 된 잠옷 (25)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생긴다 (26)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예전에는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의 열매나 짙 따위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주로 화학 섬유로 만든다

세로열쇠

(1)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2) 벗겨 놓은 비의 껍질 (3)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배낭의 변한말이죠 (4) 선박이나 비행기가 항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6) 쇠붙이를 곁에 붙여 지은 갑옷.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을 두른 듯 (7) 어떤 일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거처적거리며 방해가 되는 장애 (8) 마소를 먹이기 위하여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풀 (9)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 (11) 인가에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 절의 양식을 대는 승려. 심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 ~에게 약속했다 (12)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 (14) 사람의 목 위의 부분. ~를 숙이다 (15) 음식을 먹다가 불을 깨물어 생긴 상처 (17)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손가락의 지문을 도장 대신으로 찍은 것 (18) 뿔나무의 열매 (20) 나무를 파서 만든, 진 땅에서 신는 신 (22) 물속에서 사는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23) 조선시대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기 위해 종(쇠북)을 치던 일 (24) 처음에 팔리는 것으로 미루어 예측하는 그날의 장사운

스도쿠

	3	5	4		7			6
6			7			5		1
						2		3
	9			2		7		8
2				5	1			9
	6		4	9	8			1
1		5		6	7		8	2
4		2				6	9	7
9	7			8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8	1	4	8	2	9	7	6
7	6	9	3	1	5	2	8	4
2	8	4	7	9	6	5	3	1
1	5	2	8	6	4	3	9	7
6	9	3	1	5	7	8	4	2
8	4	7	9	2	3	1	6	5
3	7	5	2	4	9	6	1	8
4	1	6	5	3	8	7	2	9
9	2	8	6	7	1	4	5	3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CVS: _____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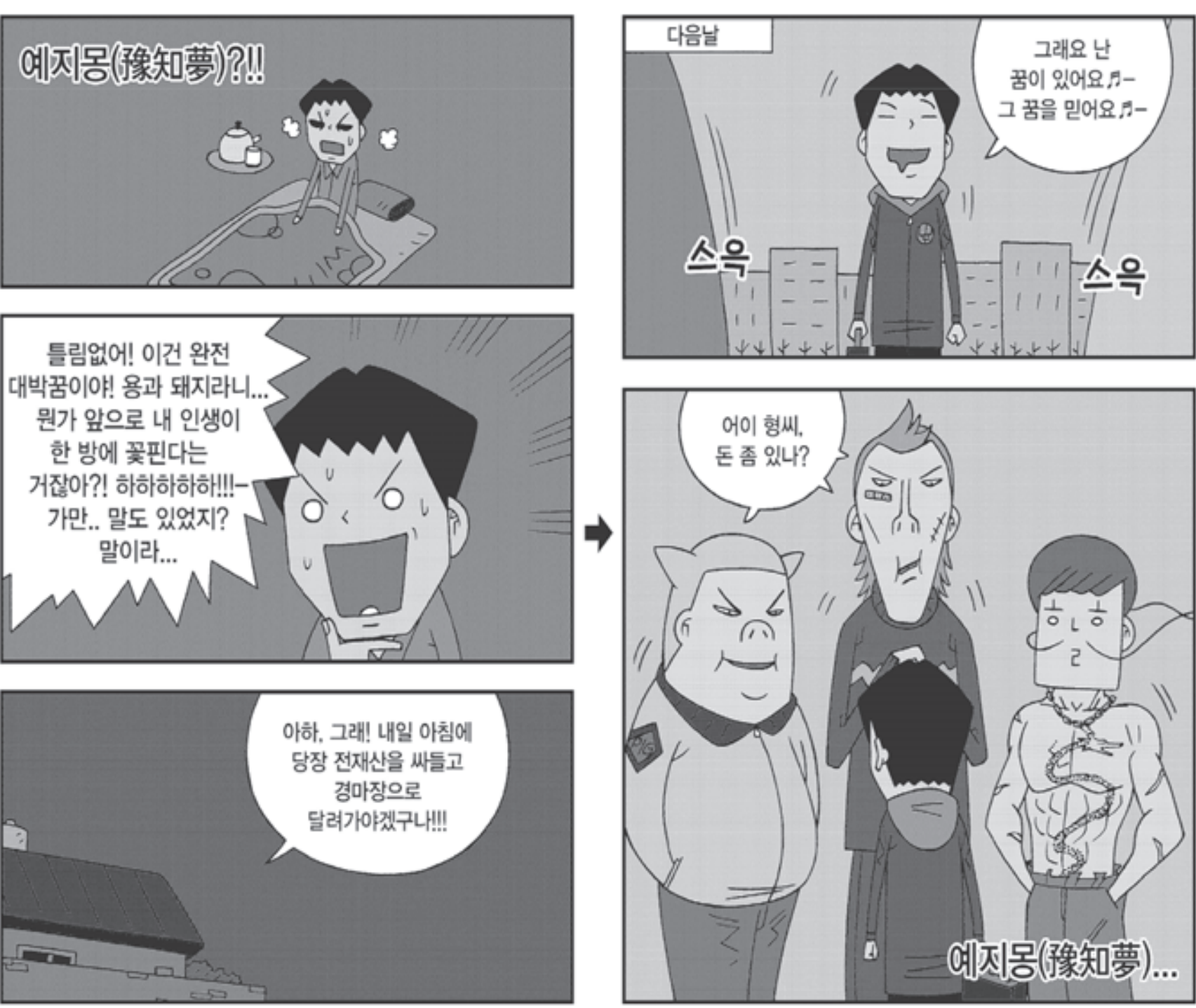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꿈**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7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중앙일보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 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터레이션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콘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정비/바디샵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채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
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우주시키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
니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파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장실, 유모(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부동산 렌트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장실2, 차고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장실,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장실 2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장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장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3.5,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장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장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 또는 직장여성
육실별도/세탁기 월 \$640(유모)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 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북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 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장2, 깨끗한 이중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 엘리먼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장실1. 냉장고. 인터넷 취사가
가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맥크린 싱글하우스에서
유학생 홈스테이 구합니다
즉시 입주가능합니다
703-307-2473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환영/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자정주
차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뒷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근교 단독주택 \$574,000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단독주택 \$526,000 방3, 화장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55+ 시니어 주택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장2, 차고1, HOA (\$150)
--	--	---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Guide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드맨·플로밍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7월의 핫딜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톡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보세요~

H O T D E A L S S U P E R S A L E

1 강력한 5중 차단
2 광노화 안티에이징 케어
3 윤기나는 건강한 피부

**UV protector
Tone-Up
SPF50+ PA++++**

HERA
UV PROTECTOR MULTI-DEFENSE
BROAD SPECTRUM
ANTI-AGING
HYDRATING SUN CREAM
SPF50+/PA++++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초강력 5중차단과 안티에이징, 마일드 UV, 품질대란템

들뜸없이 밀착&촉촉, 멀티 기능성 데일리 선크림 50ml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디펜스

1개 \$32 2개 \$5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Crotchless Panty Hose (20 DENIER)

여름 밀트임 스타킹으로 가볍게 라운딩을 즐기세요! 발고리형

울트임방지, 자외선차단, 편리한 통풍, 올누드타입, 밀트임 보네프리 **여름용 20D 골프 스타킹**

Crotchless Panty Hose 1개 \$19 2개 할인 \$36

ORELIAN

KSBA

무료 배송
Free Shipping

NEW 인견x크레오라 엑스크로스 쿨 텐션 브라&팬티 4세트

깃털처럼 가볍게! 아이스 스킨, 베이지 스킨, 펄샤이닝 스킨, 블랙
오렐리안 쿨 텐션 브라팬티 4세트

차원이 다른 가벼움과 극강의 쾌적함 ~~\$99.99~~ \$70.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M.house

누비차렵이불 누비패드 베개커버

박홍근 홈패션 [구성] 누비차렵이불, 누비패드, 베개커버

자연을 닮은 아름답고 건강한 침구로 생활가치를 높이는 일
엠하우스 시어서커아사 세트 K

핑크, 블루 차렵패드세트 King Size ~~\$200~~ \$169

강력한 탈수
9 단계
ISO
ISO 13485
SK
화학소재
다기능소재
국내생산
특허등록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요거트메이커, 유청분리기 야채 탈수기, 니물 두부 물기 제거

프리미엄 에코젠소재+검증된 포스코 SUS304스프링 사용
플루딕 찰순이 **그릭요거트 메이커**

9단계 강도조절 가능한 압착형 탈수 시스템 \$38.7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곰팡이백서
Disinfectant Deodorizer Gel
Silicone Gel Mold

곰팡이백서x3개입 겔타입으로 편리하게 곰팡이 제거!

욕실 줄눈, 배수구, 찌든 때와 곰팡이 원인까지 제거!
바르는 곰팡이 제거젤 **곰팡이백서**

우리집 살림 끝판왕! 3개입 특가 \$35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정월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씬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기타 지역

매매 미용실-LA한타근처
가격:\$4만(내고가능)
(818)288-3762

구인

급매 한국택배
FEDEX/ MAILBOX
AT&T/ SPECTRUM
11년간 운영, VALLEY 지역
트래픽/ 포텐셜 많은장소
가3만 (213)572-7977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력: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매
Up to 40% 할인
Up to 40% 할인
Up to 40% 할인

50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벅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JAWS Topokki**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데크!

\$69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펜스.

\$43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